이천이십이년 | 통권 20호
www.gyeoremal.or.kr

겨레말

| 겨레말 초대석 | 민현식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이사장
8천만 남북 겨레와 온 누리가 이용할 통일한국어사전

| 기획특집 | 방언의 재발견
방언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평화문화프로젝트
평화와 통일을 꿈꾸는 사람들



목차

겨레말 | 이천이십이년 | 통권 20호







02 겨레의 창
《겨레말큰사전》은 통일의 교두보 • 김정대

06 겨레말 초대석
민현식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이사장
8천만 남북 겨레와 온 누리가 이용할 통일한국어사전

12 심상
보이차 고장에서 만난 언어민족주의 • 이상엽

기획특집 | **방언의 재발견**

16 **방언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18 강릉 방언을 찾아서 • 이익섭
방언사전 편찬을 위한 방언 수집과 그 의의

24 육진 방언을 찾아서 • 곽충구
《두만강 유역의 조선어 방언 사전》의 편찬과 소회

28 칼럼1 전북 방언 • 이태영
한글고전소설에 나타난 전라북도 방언의 아름다움

32 칼럼2 충남 방언 • 김정태
느림과 여유의 충청남도 방언

표지 설명 | 지난 11월 3일과 4일 페럼타워에서 제3회 유네스코·겨레말큰사전 국제학술포럼 〈토착어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열렸다(본문 4쪽과 67쪽). 포럼의 주제는 토착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착어로 문학하기와 세계 사전에 나타난 지역어'였다.

발행인 민현식 편집인 모순영 책임편집 윤석정 편집 홍서현 교정 김미경, 이주랑 발행일 2022년 12월 1일
발행처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주소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6, 12층(공덕동) 전화 02)3275-0815 전송 02)3275-3715
누리집 http://www.gyeoremal.or.kr 전자우편 gyeoremal@gyeoremal.or.kr
디자인 해든디앤피 02)2266-6372 인쇄 (주)태광P&D



36


52



58


66

36 확대경
미완이 아닌 완성된 내일을 그리며 • 권민경

겨레말 탐구생활

40 남녘말 북녘말
뒷받침과 안받침 • 이형주

44 뜻풀이 깁고 더하기
들국화 • 이윤경

48 우리말 보물찾기
新 전원 일기 • 신미나

52 평화문화프로젝트
평화와 통일을 꿈꾸는 사람들 • 신경훈

58 사진으로 만나는 겨레말
겨레의 말글살이에 대한 충실함으로 가득했던 그때, 우리의 얼굴들 • 변영수

62 겨레말 사람들 | 4인 4색
#김미경 #노명아 #이길재 #최준호

66 겨레말 소식

68 겨레말 낱말 풀이

일러두기 | ① 본문에서 중복적으로 표현하는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는 '사업회'로, 남북공동편찬회의는 '공동회의'로 통일한다.
② 본지에 게재된 외부 필자의 원고는 사업회 입장 및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다.

《겨레말큰사전》은 통일의 교두보

글 **김정대** 경남대학교 명예교수

《겨레말큰사전》은 우리 겨레의 비원(悲願)이 담긴 사전이다. 말부터 '통일'되어야 한다는, 분단 겨레의 간절한 소망을 담은 사전이기 때문이다. 남북한을 대표하는 사전에서 선정한 말, 문헌 자료, 남북 및 해외 여러 곳에서 사용하는 지역어 등 총 30만여 어휘를 싣는다 하니 기대되는 바 크다.

2021년 3월, 《겨레말큰사전》 가제본이 발간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맨 먼저 떠오른 것이 북한산 담배 '영광'이었다. 가로가 세로보다 커서 더욱 이색적으로 보였던 이 담배 한 갑이 필자의 손에 들어온 것은 2004년 12월,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의 일이다. 그때 필자는 남북한 공동으로 진행될 방언 조사 회의에 참여하기 위해 중국 선양(瀋陽)에 있었다. 남측은 국립국어원 언어정책부, 북측은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가 중심이었다. 남측에서 6명, 북측에서 7명이 이 회의에 참석했는데, 그때 필자는 북측의 젊은 학자들을 만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피는 물보다 진한 법

5박 6일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피가 물보다 진하다는 사실을 절감한 시간이었다. 내일이면 헤어질 마지막 저녁 식사 자리에서 우리는 술 한잔을 나누었다. 필자 곁에 앉았던, 가장 젊은 북측 학자가 선물이라며 건넨 것이 '영광'이었다. 그동안 정(情)도 들어 식사 자리에서는 형, 아우 하던 사이였다. 그 아우로부터 뜻하지 않은 선물을 받고 와락 감정이 북받쳤다.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고 굵은 눈물을 쏟았던 일이 어제인 듯 선명하다. 통일이 되면 개봉하리라, 그런 심정으로 아직까지 필자는 그 담배를 고이 간직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일이 원인이 되어 경남대 국문과에 '통일 시대의 한국어'라는 교과목을 신설한 것도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다.

《겨레말큰사전》 편찬의 첫걸음은 1989년 3월로 거슬러 간다. 당시 문익환 목사가 평양을 방문했을 때 '통일국어대사전'의 남북 공동 편찬을 제안하고 김일성 주석의 동의를 얻어 낸 것이 계기였다. 그러다가 2004년 4월 남북한 관련 단체가 중국 옌지(延吉)에서 사전편찬의향서를 체결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이 무렵 남북한 사이에는 또 다른 언어 관련 국책 사업도 논의되고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남북한 방언 조사 사업이다. 그러나 북측의 방언 조사 사업은 그쪽의 여러 가지 일로 해서 몇 년 만에 중단되고 말았다. 남측에서는 10년 사업으로 이어져 2013년에 대단원의 막을 내렸지만 말이다. 필자로서는 두 번밖에 만나지 못했지만, 북측의 젊은 학자들과는 많은 부분에서 의사소통이 잘 되어 우리가 통일의 물꼬를 틀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가졌기에 그 아쉬움은 참으로 컸다.

지역어(방언)는 우리말 사전 간행의 알파요, 오메가의 위치를 차지한다. 다양한 지역어 자체가 무형의 문화유산이기 때문이다. 대일항쟁기(일제강점기) 표준어 사정은 한글 맞춤법 제정과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대단한 사건이었다. 당시 우리말 사전을 간행하는 데는 언어 '통일'을 위한 표준어 사정과 그것을 표기할 한글 맞춤법 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그러나 그렇게 제정된 표준어는 어느새 모든 방언들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되어 지역어 소멸을 부채질하는 주범이 되었다. 언어가 사라지면 그 사용자들의 문화와 정신, 그리고 전통마저 사라진다. 세계 하나가 완전히 사라지고 마는 셈이다. 그래서 지난 11월 초에 개최되었던 제3회 유네스코·겨레말큰사전

국제학술포럼의 주제도 '토착어의 지속가능한 발전: 토착어로 문학하기와 세계 사전에 나타난 지역어'가 아니던가. 유엔이 2019년을 '세계 토착어의 해'로 지정한 데 이어 2022년~2032년을 '세계 토착어 10년'으로 선언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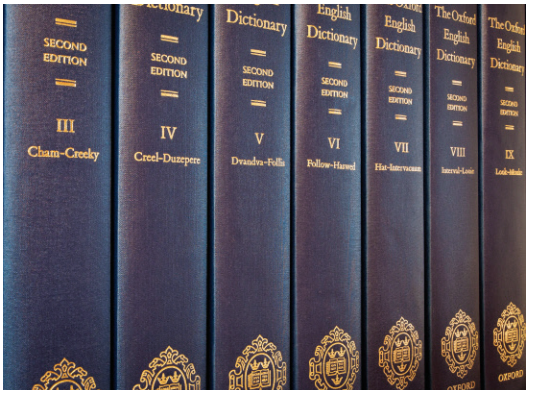
↑ 제3회 유네스코·겨레말큰사전 국제학술포럼 〈토착어의 지속가능한 발전〉(11월 3일~4일)

시련이 클수록 열매는 달콤한 법

경남 방언에 '늑삼'이라는 말이 있다. "주위의 관심에 편승한 과장된 행위"를 이르는 말이다. 자신이 없는 싸움을 할 경우, 누군가가 말려 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매한가지일 터이다. 실제로 어떤 친구가 그 싸움을 말려 주면 속으로는 고맙기 그지없다. 그러나 정작 나의 언행은 "놔라, 저 죽고 나 죽는다"라는 과장된 호기로 포장되기 일쑤다. 몇 번 말리던 친구도 화가 난다. 그때 하는 말이 "옆에서 말리니까 저 늑삼 부리는 것 좀 봐!"이다. 이런 심리 상태와 관련된 표현이 표준어에는 그 어디에 있는가. 그러나 이 좋은 '늑삼'도 표준어가 아니라는 이유로 우리말 어휘 체계에서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

필자는 《겨레말큰사전》의 편찬을 《옥스퍼드 영어사전》(Oxford English Dictionary. OED)과 《큰사전》의 편찬에 비유하곤 한다. 시대나 주어진 여건은 전혀 다르지만, 내외적으로 많은 공통점을 안고 있어서다. 《OED》 발간의 계기가 되었던 것은 1857년이고 10권으로 된 초판이 완성된 해는 1928년이다. 71년의 세월이 한 사전의 편찬에 투자된 셈이다. 《OED》는 12세기 중엽부터 영어권에서 사용된 각 지역어 총목록을 담고 있다. 개정판의 발간과 증보, 인터넷판 발간 및 수정 작업 등을 보면 《OED》는 명실상부 인류 지성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결정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발간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어려운 국면을 맞았던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첫 출발에서 무려 22년의 세월이 흐른 뒤인 1879년에 이르러서야 "7,000페이지를 넘지 않는 역사적인 사전을 출판한다"라는 조건으로 옥스퍼드대 출판사와 계약을 맺을 수 있었으니 말이다. 애초 그들은 사전 제작 기간을 10년 정도 예상했다고 한다. 그러나 5년 뒤에 그 첫째 권만이 출판되었을 정도로 사전 편찬 작업은 지지부진했다. 초판이 완성될 때까지 편집장의 자리에 모두 네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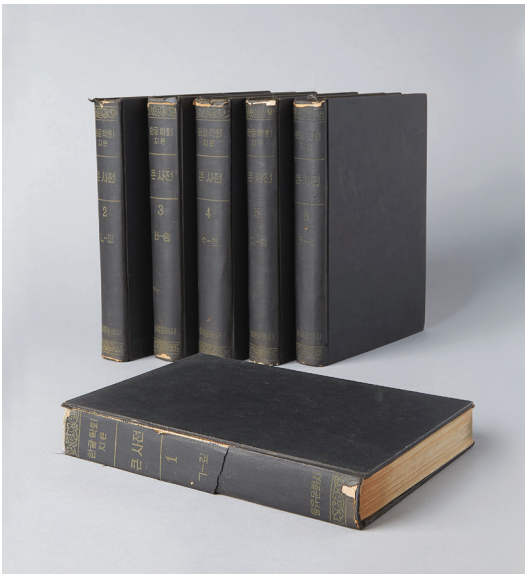


↑ 《옥스퍼드 영어사전》(전 20권) 제2판(1989년)

람이 앞았다는 점도 그 어려움을 대변해 준다. 산업 혁명을 일으키고 지구촌 곳곳에 엄청난 식민지를 건설해 놓았던 영국이었지만, 제대로 된 사전 하나를 펴내는 일은 그렇게 힘들었던 것이다.

조선어학회(한글학회)에서 《큰사전》을 펴낸 일은 런던문헌학회에서 《OED》를 편찬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었다. 우리의 선각자들은 일본 경찰의 눈을 피해야 하고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외적인 문제와도 싸워야 했고, 앞서 언급한 새 맞춤법을 만들고 표준어를 사정해야 한다는 내적 문제와도 씨름해야 했다. 1929년 10월에 본격적 활동에 들어가 해방 이후인 1947년 10월에 《조선말큰사전》이라는 이름의 첫 권을 내었다. 모두 여섯 권으로 된 사전이 완간된 것은 1957년 10월이었으니, 사전 발간에 소요된 기간은 자그마치 28년에 이른다. 총 165,059개 항목 가운데 '사투리' 표제어는 13,000개에 이른다. 첫 권을 내고도 완간까지 10년이 더 걸린 데에는 6·25전쟁의 여파도 있었지만, 우리 정권에 의한 방해 공작이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승만 정권이 느닷없이 한글 간소화 방안을 내놓아 평지풍파를 일으킨 일을 아는 사람은 안다.

그러면 《겨레말큰사전》 간행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외적 어려움은 당연히 우리 겨레가 둘로 나눠져 있다는 데서 온다. 정치적 바람에 따라 사전 편찬의 속도가 차이가 난다는 것이 가장 우려스러운 일이다. 내적 어려움도 한둘이 아니다. 남북 분단은 남북한의 어문 규범 일부까지 변질시켜 버렸다. 한글 자모순이 다르고 일부 자모는 이름조차 다르다. 두음 법칙, 사이시옷, 띄어쓰기, 문장 부호 등 합의를 이루어야 할 문제는 한둘이 아니었다. 그러나 자모순과 자모의 이름 등은 서로가 한 발씩 양보하여 합의를 이루었으니, 이것은 상당한 진전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정신이면 무엇인들 못 할까 싶다.



↑ 한글학회 《큰사전》(전 6권) 완간(1957년)

시련이 크면 클수록 그 열매는 더 달콤한 법이다. 안팎의 어려움을 잘 이겨 내고 남북이 손잡고 《겨레말큰사전》을 온전히 발간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리하여 이 사전이 명실상부 우리 겨레 통일의 교두보 역할을 하기를 두 손 모아 빈다.



김정대

경남대학교 한국어문학과 명예교수 겸 고운학연구소장이며, 국립국어원 지역어조사위원을 역임했다.

8천만 남북 겨레와 온 누리가 이용할 통일한국어사전

지난 11월 24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사업회에서 민현식 이사장을 만났다. 그를 만난 날은 마침 이사장 취임 100일을 맞는 날이었다. 그는 취임 후 짧은 기간 동안 대내 학술 연찬회와 국제학술포럼 행사를 치러냈고, 한글날 제576돌을 맞아 《미리 만나는 겨레말작은사전》을 펴내기도 했다. 오는 12월에 예정된 제7기 이사회의 첫 회의와 내년 사업 계획에 대한 논의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그의 근황을 묻고 《겨레말큰사전》 소개를 비롯해 남북 언어문화 통합을 위한 사업회의 역할과 방향, 대표적인 사회문화교류 사업인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의 전망까지 함께 들어봤다.

진행 **윤석정** 겨레말큰사전 기획홍보부 부장
정리 **홍서현** 겨레말큰사전 기획홍보부 과장
사진 **이효영** 사진작가




겨레말은
겨레얼
입니다







겨레말 초대석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 독자들에게 인사 부탁드린다.

사업회 이사장으로서 겨레말 초대석에 초대돼 기쁘다. 국어교육을 수십 년 배우고 가르쳤어도 인터뷰는 가장 어려운 화법이다. 자기소개 5분이 인터뷰 전체를 좌우한다고 하는데 떨리기도 한다. 나는 휴전 직후 서울서 태어나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전쟁의 폐허에서 가난했지만 모두가 이웃사촌이었던 동네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왔다. 그 후 지금까지 교육자로, 연구자로 지내며 국어를 연구하고 가르쳐왔다. 2년 전 모교인 서울대 국어교육과에서 정년 퇴임하고 밀렸던 저술작업을 하던 중 8월에 사업회를 맡게 됐다.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 국민과 학계가 원하는 '통일한국어사전'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를 생각하며 겨레의 소원을 받들어 유능한 직원들과도 한마음 되어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 8월 이사장에 취임한 이후 근황이 궁금하다.

취임 이튿날 연세대에서 한국사전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전국학술대회가 있었다. 사업회 이사장으로서 인사차 전국학술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사업회에 출근하면서 사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부서별 업무 보고를 받았고, 9월 말까지 직원들과 점심을 함께 들며 근황과 업무상 고충을 청취했다. 직원들이 젊음을 바쳐 헌신해 온 이 일의 가치를 다시 깨닫는 시간이었다. 8월 말 통일부 권영세 장관님을 예방해 새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한 말씀과 비정치적 남북교류사업인 편찬사업에 대한 기대를 듣고서 더 깊은 책임을 느꼈다. 이후로 가장 많은 심혈을 기울인 일은 제7기 이사진 구성이었다. 지난 11월 1일 출범한

제7기 이사진을 구성하면서 사전 편찬에 집중하고자 언어학과 사전학 전문가, 북한 문학 전문가를 중심으로 통일교육 전문가, 남북교류 법률 전문가, 남북 경제 교류 전문가를 모셨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을 꼽으라면 서울문화비축기지에서 열린 직원 문화탐방과 유네스코와 함께 추진한 국제학술포럼이다. 10월 18일 확 트인 공간에서 코로나19와 공동회의 중단으로 지친 직원들과 새로운 다짐을 했다. 11월 3, 4일 양일간 개최한 제3회 유네스코·겨레말큰사전 국제학술포럼도 성황리에 마쳤는데 이번 포럼을 통해 토박이말 수집의 중요성과 사전의 역할에 대해 절감하게 됐다. 한글날을 맞아 사업회 직원 모두가 여름내 애써 만든《미리 만나는 겨레말작은사전》을 펴낸 일도 뜻깊었다.

맨 처음 국어교육을 전공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고등학교 시절 신문반 활동을 했는데 당시 국어과 담임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 국어교육과에 진학했다. 대학 진학 후에 '왜 사는가'라는 문제로 고민하고 대학원에 가서는 학문이 이 시대에 어떤 답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고 인간의 생명을 인간답게 이루고, 문명을 이루는 열쇠가 인간의 말과 글'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언어 연구와 교육의 소중함을 발견하게 됐다. 대학원 진학 역시 학부 은사님의 권유로 인문대 대학원으로 진학한 것이니 훌륭하신 은사님들의 은덕을 크게 입었다. 여전히 은사님들의 학문에 비할 때 스승을 닮지 못하고 한참 부족한 불초(不肖) 제자일 뿐이다.

제9대 국립국어원장에 이어 사업회 이사장까지 맡게 되어 우리 말글, 특히 사전에 대한 애정이 각별할 것 같다.

대학원에서 주로 문법론과 어휘론을 공부해 현대국어 격(格) 문제로 석사를 했다. 박사는 중세국어 시간부사를 연구했는데 시제와 상(相)의 문제를 시간부사 어휘 의미 체계로 연계해 탐구했다. 그 후 제2의 고향이 된 강릉대(현 강릉원주대)에서 8년간 학생들을 가르쳤고, 숙명여대 재직 시절에 국립국어연구원 어문규범부장(1997~1999)을 겸직하면서 사전편찬실을 관리했다. 당시《표준국어대사전》마지막 작업을 하면서 사전학이야말로 음운론, 문법론, 어휘론, 의미론 등이 종합된 종합응용언어학임을 절감했다.

2012년에는 국립국어원장으로 강서구에 있는 방화동 청사로 북행해 출근하게 되었는데 당시에도 통일시대 한국어 정책은 어찌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자주 던지던 질문이었다. 이제 사업회 이사장을 맡게 됐으니 세계 최고의 통일한국어사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내 생애 최고의 과업이 됐다. 전국의 유능한 학자들의 국어학, 사전학의 성취와 지혜를 담아 학계와 함께 만들어가도록 하겠다.

이사장 취임 이후 목표와 가장 고민하는 게 있다면?

한국은 세계 10대 무역 대국으로 이젠 선진국이 됐다. 한국어의 위상도 함께 높아져 미국 대학에서 외국어 선택과목 10위권에 든다. 우리 말글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 속에서 세계 최고의 통일한국어사전,《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해 남북 8천만 겨레와 온 누리의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유용한 사전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다. 그간 사업회 모든 임직원들의 헌신으로 남북 편찬원들의 땀과 숨결이 담긴 북측 협의용《겨레말큰사전》가제본(10권 1질, 아래 '가제본')이 나왔다. 앞으로 이를 정교하게 교열하고 전자(웹) 사전 시대에 걸맞게《전자 겨레말큰사전》으로 제작하려면 갈 길이 바쁘다. 이사장으로서 직접 편찬원들

과 소통하고 고민하며 한마음으로 더욱 효율적 사전 편찬 체제를 만들 수 있도록 보고·소통 체계를 단순화해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남측은 개방적 언어학 수용으로 학문적 수준이 높아졌고, 북측도 우수한 어학자들이 《조선말대사전》을 여러 차례 개정했고 조선어 정리사업으로 고유어의 어휘력을 발전시켰기에 남북이 계속해서 함께 논의한다면 최고의 우리말 사전을 편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의 의미는 무엇인가?

분단 시대에 끊어진 겨레말을 잇기 위해 남북 학자들이 함께 편찬하는 통일한국어사전이라는 의미가 가장 크다. 남북은 같은 언어를 쓰는 한겨레로 세계에서 보기 드문 민족이다. 체제가 다른 데서 오는 제도와 이념어만 다를 뿐 생활어는 대부분 소통이 가능하다. 따라서 남북한은 장차 통일시대를 바라보며 통일한국어사전 작업을 추진해 서로의 다름에서 서로의 같음을 확인해 통일 후에도 혼란 없이 소통할 수 있는 사전을 만들어야 한다. 그동안 남한에서 나온 사전들은 부득이하게 남한어 중심의 '반쪽사전'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겨레말큰사전》은 남북언어를 통합적으로 모아 편찬하는 '통합한국어대사전'이라는 뜻이 있다.

그렇다면 지향하는 바에 대해서도 말씀해 달라.

《겨레말큰사전》은 남북한 최대의 토박이말 사전이기도 하다. 그동안 남북에서 따로 방언 연구가 있었지만, 남북에 흩어져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토박이말을 발굴하고 수집해 남북한 최대, 최고의 토박이말 사전이 되도록 할 것이다. 또한 《겨레말큰사전》은 '통일표기법사전'을 지향한다. 남북언어정책의 산물로 각기 다르게 발전한 어문규범의 장점을 모으고 단점을 줄이는 합리적인 통일규범을 추진해 단일하게 표기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두음 법칙, 사이시옷 표기 문제가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규범통일에 관한 논의도 시작해 통일규범을 만드는 일을 병행해야 한다.

《겨레말큰사전》은 단순히 사전학적 유물이 아닌 통일 후 온 겨레가 유용하게 활용하는 실용적 사전이어야 한다. 남북이 통일된 후 예상되는 사회언어학적 문제를 미리 예견하고 대책을 세워 《겨레말큰사전》이 혼란을 막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려면 사업회가 궁극적으로 통일시대를 대비하고 통일 이후 한국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2015년 이후 사업회 공동회의 재개가 지연되고 있다. 이런 때 사업회가 준비해야 할 것은?

남북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25회 만나 12만여 단어를 합의했는데 2016년부터 더 이상의 남북교류가 이루어지지 못해 유감이다. 합의 정신을 살려 그동안 나머지 단어들도 쉽게 합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온 만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80만 올림말을 목표로 《전자 겨레말큰사전》 편찬 작업에 집중하되 특히 남북 및 해외 지역에 흩어져 있는 지역어와 남북 간 차이가 심한 전문용어의 조사·채집, 연구에도 집중하려고 한다. 국제정세로 서로 만나지 못하고 있지만 남북이 각자 규범 정비 연구와 통합사전의 방향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기대되는 사업회 사업과 활동을 소개해 달라.

2021년에 제작한 가제본 체제의 지속적 갱신 교열 작업, 《전자 겨레말큰사전》 체제 구축, 남북 전문용





어 수집 구축이 주요한 사업이 될 것이다. 지난 한글날에 맞춰 나온 《미리 만나는 겨레말작은사전》의 2권과 3권을 2023년에 완성하고, 사업회 공식 유튜브 채널 겨레말TV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해 모든 국민 여러분께 사업회와 《겨레말큰사전》을 힘써 알리고자 한다. 특히 앞으로 '겨레말문화학교(가칭)'를 열어 전국 공무원, 교원, 시민들의 '겨레말 연수'를 시작하려고 한다.

지금 꿈꾸는 것이 있다면?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서 철강, 조선 등 5대 제조업 국가가 되어, 한류로 다른 나라들의 부러움을 받고 있듯이, 선진국 중에 존경받는 5대 선진국이 되고, 남북통일을 이뤄 '서울-평양'이 아시아 발전의 중심축이 되어 '베이징-모스크바-스위스-파리-런던'으로 이어 달려가는 시대가 되기를 꿈꾼다. 한국어 산업이 한국을 부강케 하는 성장동력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우리 사업회 직원들이 사전 편찬의 꿈을 보람차게 이뤄가면 좋겠다.

끝으로 《겨레말》 소식지 독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인간은 말을 만들고 말은 인간을 만든다고 한다. 말 한마디가 나를 드러내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며 지도자의 말은 나라의 운명을 바꾸기도 한다. "말이 오르면 나라가 오르고 말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라는 주시경 선생의 말씀처럼 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는 오랜 시일이 걸리지만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다.

요즘 한류와 한국어의 가치는 치솟고 있지만 안에서 주고받는 우리의 말글은 외국어, 비속어, 욕설이 범벅이고 한자가 떠난 자리는 알파벳이 뒤섞여 한글이 신음하고 있다. 덩달아 말의 신용이 무너지는 소리도 곳곳에서 들린다. 무신불립(無信不立), 신뢰가 무너진 사회는 존립할 수 없다고 했다. 천금보다 값진 말이 헐값도 안 되어 말의 신용이 무너지고 있다. 이때야말로 '한국어 대각성운동'이 가정, 학교, 언론, 종교, 공직사회에서부터 일어나 우리의 혼탁하고 갈라진 언행심사(言行心思)를 깨끗이 닦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 통일도 축복으로 다가오리라 믿는다. 찢기고 갈라진 말로는 어떤 통일도 기대할 수 없다. 사업회도 통일의 그날까지 남북이 겨레 사랑의 정신으로 상호신뢰를 쌓아가도록, 최고의 한국어사전 편찬의 일꾼이 되도록 힘쓰겠다.

보이차 고장에서 만난 언어민족주의

글·사진 **이상엽** 사진가



↑ 멍하이 열대우림 속에서 몰래 자란 고차수 숲이다. 약 300~500년의 수령을 자랑한다. 이 찻잎으로 만든 보이차의 가격은 상상 이상이다.

중국 윈난성 시솽반나의 멍하이 평원에는 넓은 바나나밭이 펼쳐져 있다. 비가 오려는지 오전 내내 흐리고 먼 산에는 구름이 깔린다. 이곳 멍하이는 윈난 남부의 곡창지대라 불리는 다이족(傣族, Dǎizú)의 거주지다. 시솽반나가 다이족 자치주이기에 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또한, 보이차의 고향이자 중국에서 가장 먼저 차를 생산하고 마신 곳이다. 그렇다면 과연 다이족, 그들은 누구일까? 혹시 사람들의 상식처럼 태국의 타이족과 같은 소수민족일까?

1953년 시솽반나다이족자치구가 설립됐다. 여기서 중국어 다이는 타이의 음차로, 1939년 국명을 바꾼 태국(Kingdom of Thailand/泰國)을 염두에 둔 것이다. 즉 중국도 이들 민족을 동족이라 본 것이다. 원래 시암으로 불리던 태국은 1939년 군부가 쿠데타에 성공하면서 국명을 바꿨다. 아마도 현 태국의 최초 왕조가 수코타이라는 점, 타이(Thai)는 타이어로 자유 또는 자유민을 뜻한다는 점에서 붙여진 이름일 것이다. 또한, 당시 태국 군부가 주창한 '범타이주의'는 중화민국의 윈난, 라오스, 미얀마 등에서 동계의 언어를 쓰는 집단을 모두 포괄하겠다는 대외 팽창주의를 뜻했다. 이러한 주장을 역사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태국 군부는 역사상 중국 윈난 지역에 존재했던 고대 남조국과 대리국을 세운 것은 타이 민족이라 주장했다. 남조국과 대리국이 멸망하면서 타이 민족은 동남아시아로 이동해 오늘날과 같이 여러 지역에 분포하게 된 것이라는 학설이 범타이주의의 배경이



된다.

타이족은 자신들이 북방 중원에서 기원해 외적의 침입으로 지금의 윈난까지 내려왔다고 믿는다. 하지만 이는 근대의 산물일 가능성이 좀 더 크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대 윈난의 국가였던 남조국의 성립과 민족적 기반에 대한 논의는 20세기에 들어와서 활발해졌다. 영국 외교관이자 학자였던 E. H. 파커가 1895년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태국의 타이족과 미얀마의 샨족, 그리고 중국 내의 다이족은 본래 동족으로서, 중원과 장강 유역에 거주하다가, 한족의 압박을 받아 8세기 운남으로 이주해 남조국과 대리국을 세웠다는 것이다. 그러나 13세기 몽골의 쿠빌라이가 대리국을 멸망시키자, 이들은 운남, 미얀마, 태국으로 이주했는데, 윈난에 이주한 집단에 의해 경농국이, 타이에 이주한 집단에 의해 수코타이국이 미얀마에 이주한 집단에 의해 바간왕국이



← 오토바이를 타고 시내를 질주하는 승려들. 거의 모든 다이족 남성들이 어려서 출가를 해 약 3~5년 정도 승려로 살아간다.



← 멍하이의 다이족 여성. 이들의 언어, 종교, 생활습관 등은 남쪽의 태국과 별반 차이가 없다.

세워졌다고 주장했다. 근거로는 언어학적으로 이들의 언어가 따이어파에 속한다는 점을 들었다. 이러한 주장은 '대태족설', '남조태족왕국설'이라고 불리면서 서구와 동남아시아 국가에 상당히 널리 확산됐다. 특히 13세기 이전의 역사가 불분명한 태국을 비롯한 여러 동남아 국가들에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여졌다. 특히 태국에서는 13세기의 고대사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논설로 확산했다.

이 학설은 별다른 검증 없이 1960~70년대까지도 태국, 서구 세계와 동남아시아 역사학계에 널리 받아들여졌다. 중국 해방 이후는 물론이고 현재 시솽반나다이족자치주의 공식 홈페이지에도 이 설을 그대로 표기하고 있다. 그 때문에 중국의 역사학자들이 민국 시기부터 남조국과 그 족원 문제에 크게 집착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중국 역사학계에서는 이 논설에 반박하는 연구들을 줄기차게 내놓았다. 그 결과 남조국은 바이족과 이족의 선민이 연합해 세운 국가라는 설이 중국 학계에서 다수의 지지를 얻었다. 최근 우리에게 소개되는 중국 남방 역사서는 이 이론을 따르고 있다. 또한, 태국 내에서도 또 다른 이유로 '남조태족왕국설'을 부정하는 연구가 축적되기 시작했다. 태국 군부 독재에 저항하던 운동그룹이 '범타이민족주의'보다는 현 태국 경내의 '로컬 히스토리'에 주목하면서 타이족 이동설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 역사학계의 의견을 100% 따를 이유는 없지만, 이동설과 정주설 둘 가운데 어디쯤 진실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현 태국의 범타이주의에 대해 중국 내 다이족 사람들은 어찌 생각할까? 아주 극명한 사건이 하나 있다. 바로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태국 군부의 범타이민족주의를 지지한다는 명목으로 시솽반나를 폭격한 것이다. 바로 중국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면서 말이다. 1942년 징훙, 멍하이 등에 쏟아진 폭격에는 폭탄뿐 아니라 범타이민족주의를 선전하는 전단지가 함께 있었다. 이에 중국 내 다이족은, 같은 민족은커녕 일제를 앞세운 태국에 반감을 갖게 된다. 역사는 늘 지금 사람들의 상상에서 기원한 것이 많다.



이상엽

다큐멘터리 사진가. 현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사이며 〈농민신문〉, 〈르몽드디플로마티크〉 등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변경의 역사〉 등 여러 전시를 했고 『그곳에 가면 우리가 잊어버린 표정이 있다』, 『변경지도』 등 다수의 책을 썼다.

육진

강릉

충남

전북

방언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이번 기획특집은 '방언'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하기 위해 마련했다. 《겨레말큰사전》에는 남과 북뿐만 아니라 해외 지역에서 발굴, 채집한 겨레말이 수록된다. 사업회는 2020년부터 유엔이 선포한 '세계 토착어 10년(2022-2032)'에 적극 동참하는 의미에서 유네스코·겨레말큰사전 국제학술포럼을 추진하고 있다. 유네스코와 함께 정한 국제학술포럼의 대주제는 '토착어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국내외 토착어 작가, 언어, 사전 전문가들과 함께 사라져 가는 토착어의 보존과 발전 방안을 모색해 왔다. 특히 올해 11월 3일에서 4일까지 개최된 제3회 국제학술포럼에서는 '세계 사전에 나타난 지역어'를 주제로 토착어를 기록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전의 역할을 논의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학술적 논의를 잇는 의미에서 본지는 국내 방언에 주목했다. 강원도 강릉(이익섭), 함경도 육진(곽충구), 전북(이태영), 충남(김정태) 지역의 방언학자들에게 우리 방언에 관한 이야기를 청했다. 강원도 강릉 방언과 함경도 육진 방언의 경우 방언을 직접 채집·조사하고 방언사전을 편찬했던 생생한 경험을 소개하고자 했으며, 전북 방언과 충남 방언의 경우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징을 살펴보면서 해당 지역 방언의 중요성, 가치, 의미 등을 다시금 되새겨 보고자 했다.

올해 초 《강릉방언자료사전》을 펴낸 이익섭 서울대 명예교수는 "우리는 그동안 다투어 방언의 중요성을 외치면서도 정작 방언이 지니고 있는 가치를 제대로 발굴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며 "지금부터라도 급격히 사라져 가는 방언을 깊이 있게 조사하고 분석하여 우리말을 더 풍요롭게, 더 반듯하게 키워가는 일에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잊혀 가는 방언을 조사해 잘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일은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이 지켜 온 방향이자 또 다른 사명이다.

방언사전 편찬을 위한 방언 수집과 그 의의

글·사진 **이익섭**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1

우리나라 초기의 방언집, 가령 소창진평(小倉進平)의 『조선어방언의 연구(朝鮮語方言の 研究)』(1944)를 보면 방언 자료들을 〈천문(天文)–시후(時候)–지리·하해(地理·河海)–방위(方位)–인륜(人倫)–신체(身體)–가옥(家屋)–복식(服飾)–음식(飮食)–농경(農耕)–화과(花果)–채소(綵素)–금석(金石)–기구(器具)–주차(舟車)–비금(飛禽)–주수(走獸)–수족(水族)–곤충·파충등(昆蟲·爬蟲等)–초목(草木)〉과 같은 분류체계로 제시하고 있다. 이 뒤에 동사나 부사, 조사, 접사 등의 항목이 더 있으나 명사류가 그 중심을 이루었다. 이것은 꽤 나중까지 일종의 모델이 되어 우리가 방언 조사를 나갈 때는 질문지를 거의 이 유형으로 만들어 나가곤 하였다.

대개 1천 개, 많으면 2, 3천 개쯤의 질문지를 만들어 그것에 따라 방언 조사를 한다는 것부터가 그렇지만 그것을 '농경'이면 '농경', '의복'이면 '의복' 식으로 범위를 정해서 조사 항목을 만들면 어쩔 수 없이 그 틀 안에 갇힐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또 어쩔 수 없이 방언 수집이 어휘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방언집들은 결국 어휘집이었다. 예문은 물론 없고 명사가 조사를 취할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와 같은 간단한 사항에 대해서도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 꽤 후대에 발간된, 더욱이 한 지역을 오랜 기간 집중적으로 조사 연구한 결과물인 현평효(玄平孝)의 『제주도 방언연구: 자료편(濟州島 方言研究: 資料篇)』(1962/1985)에서도 이 점은 달라진 바가 없다. 그리고 나중 10개년에 걸친 국가적 사업으로 실시된 〈전국방언조사연구〉의 결과물인 『한국방언자료집(韓國方言資料集)』(1987-1995)도 얼마간 개선되긴 하였으나 이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지금까지의 이런 태도의 방언 조사는 방언이 가지고 있는 많은 가치를 놓치고 만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표준어를 기준으로 질문지를 만들면, 표준

어에서는 따로 단어로 만들어진 것이 없는, 그러니까 표준어 쪽에는 없는 새 개념의 방언을 찾아내기 어렵다. 필자가 오래전에 강원도 전역을 조사 다닐 때 원주 쪽에서 묻지도 않았는데 그네를 뛰면서 앞으로 멀리 치솟으면 신이 나서 '우두구네'라고 환호를 지른다는 말을 들려주었다. 강릉 쪽에서 '춘천이여'라고 하는 걸 익히 알고 있던 터에 '우두구네'라니 귀가 번쩍 띄었다. 이때부터 조사 항목에 이 항목이 추가되었는데 '우두구네'와 '춘천이여'는 강원도가 크게 동서로 방언권(方言圈)이 갈림을 보여 주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운(運)이 따라준 것이긴 하나 그나마 사이사이 이야기를 자유롭게 풀어놓음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것인데, 방언 조사를 질문지 빈칸 채우는 숙제처럼 하지 않고 하나의 언어체계를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자세를 취하면 이런 새 개념의 방언 어휘를 쉽게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종래 방언집의 다른 한 한계는 방언형 하나에 표준어 하나를 대응시키는 일이었다. 말하자면 방언형을 표준어로 번역하는 식이었다. 외국어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도 자주 부딪치는 문제이지만, 엄격히 말하면 이 세상에 정확히 1대 1로 번역되는 단어는 하나도 없다고도 한다. 우리는 흔히 어느 방언의 '어머이'를 표준어 '어머니'와 짝을 지어 놓으면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아저씨' 따위는 방언에서도 그렇게 말하리라는 판단으로 아예 조사 항목에 넣지도 않는다. 강릉 방언에서는, 이것은 다른 곳에서도 그러리라 생각되는데, '들어가다'와 '나가다'를 각각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다'의 뜻으로도 널리 썼다. 그런데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아래 '국어사전')에 이 용법은 올라 있지 않다. 강릉 방언에서는 앞의 '어머이', '아저씨'도 국어사전에 올라 있지 않은 용법으로도 널리 썼다. 표준어와 1대 1로 대응시키는 일은 너무 안이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근래에 와서 방언의 중요성이 점차 더 크게 부각되는 일은 다행스러운 현상이지만, 그러면서도 방언이 지니고 있는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탐구하기보다는 표준어에서 느끼지 못하는 맛깔스러운 어휘를 살려 써야 한다는 가벼운 수준에서 맴도는 경우가 대부분이 아닌가 싶다. 필자는 사전 편찬을 목적으로 강릉 방언에 다시 뛰어들면서 그동안 매달려 있던 표준어는 화초밭의 잘 가꾸어진 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방언의 세계는 드넓은 산야(山野)에 깊게 숨어 있는 다채롭기 그지없는 야생화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표준어에 갇혀서 못 보던 넓은 세계가 거기 있었고, 표준어의 좁은 울타리에서 잘못 생각하고 잘못 주장하던 것을 바로 일깨워 주는 것들이 거기에 있었다.

2

필자가 강릉방언사전 편찬을 위해 현지 조사를 시작한 것은 2011년 1월이었다. 그러니까 정년퇴임을 하고도 한참 지난, 현지 조사를 하기엔 늦어도 많이 늦은 시기였다. 사실 그때까지 많은 시간을 강릉 방언 연구에 쏟았으면서도 기이하리만치 방언사전을 만들어 보겠다는 뜻을 품었던 일은 한 번도 없었는데 불현듯 노병(老兵)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 생겼다. 《방언학》지(誌)의 부탁을 받아 박성종·전혜숙의 《강릉방언사전》(태학사, 2009)의 서평(《방언학》 13호 참조)을 쓰게 된 것이 그 계기였다. 성실하고 능력 있

는 분들의 노작이니 칭찬 위주의 서평을 쓰게 되리라고 가볍게 시작한 일인데 책장을 넘길수록 황당한 것들이 계속 나타났다. 가장 기본적인 'ㅐ'와 'ㅔ'의 구별도 안 되어 있고, 일러두기에서는 성조(聲調)를 표기하겠다고 해 놓고서는 실제로 고조(高調)를 표기한 곳은, 필자의 논문 등에서 옮겨온 듯한 몇몇 곳뿐 독자적으로 발굴해 표기한 곳은 찾아보기 어려웠다(그 결과 표제어만을 놓고 보아도 고조가 들어가야 할 곳 99%는 비어 있는 상태였다). 단어의 뜻을 완전히 잘못 풀이한 것도 한둘이 아니었다. 강릉 방언을 이 상태로, 이렇듯 일그러진 모습으로 세상에 내보이도록 하는 것은 필자가 큰 책무(責務) 하나를 저버린다는 생각이 일었다.

처음에는 2, 3년 정도 걸려 그 오류만 바로잡을 생각을 했다. 필자 스스로의 지식만으로도 대부분 바로잡힐 내용이었으나 일단 현지에 가서 확인하는 절차를 밟기로 하고, 처음 찾아가 만난 분들은 강릉 시내에 살면서도 강릉 방언을 잘 보존해 쓰고 있는, 필자보다는 얼마간 젊은 분들이었다. 말하자면 '사투리 한 가지로밖에 말할 줄 모르는' 이상적인 제보자가 아니라, 평소에는 표준어를 많이 쓰기도 하는, 말하자면 아류(亞流) 제보자로 조사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이내 한계를 드러냈다. 무엇보다 농촌에 상주하면서 필자보다 연만한 고령(高齡)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행히 바로바로 좋은 분들이 나타났다. 고향이다 보니 쉽게 줄이 닿았고, 또 마을마다 노인회관이 있어 찾아가면 적어도 몇 분 뛰어난 이야기꾼들을 만날 수 있었다.

《강릉방언자료사전》(신구문화사, 2022)의 〈일러두기〉에 밝혀져 있듯이, 제보자의 연령은 어쩌다 70대가 있긴 하였으나 일단 80대 이상으로 하였고, 2014년을 기준으로 97세, 심지어 103세 되는 분도 있었다. 청력이 떨어져 이쪽 질문을 알아듣지 못해 불편한 경우도 있었으나 그 세대가 아니면 들을 수 없는 값진 정보는 그 불편을 보상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그리고 고령일수록 말 상대가 없어 무료해 하다가 열심히 들어 주는 사람이 나타난 것이 고마워 한마디라도 더 하고 싶어 하여 그만큼 풍부한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방언학 교과서에는 치아 상태가 나쁜 사람은 피하라, 귀가 어두운 사람은 피하라 등의 까다로운 조건들이 붙어 있지만 이번 조사의 경험으로는 그런 것이 다 한가로운 말에 불과하였다.

제보자의 성비(性比)는 미리 조정할 의도가 없었는데 결과적으로 남자의 비율이 얼마간 높았다. 흔히 여자 쪽이 방언을 더 잘 보존한다고 하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계층적으로는 얼마간 규모 있게 살아온 중류층이 주축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는데, 흔히 피하려고 하는 상류층에서도 의외로 귀한 자료들을 많이 얻을 수 있었다.

면접 장소는 조사 지점에 따라 노인회관이 되는 수가 있었으나 가정집일 때가 더 많았다. 노인회관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덜 주고, 또 여럿이 어울려 자유로이 나누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었으나 아무래도 집중력이 떨어지는 불편이 따랐다. 가정집은 아파트가 아니고, 비록 부엌을 입식으로 개조하는 등 본래의 모습은 아니나 전통 한옥들이어서 방언 조사에 한결 잘 어울렸다. 면접은 어느 자리에서나 대개 2~3명씩 한자리에 모여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그때 조사자는 사



이사이에 보충 설명을 요구하기도 하고 미리 준비해 간 농기구 사진 등을 보이며 묻기도 하였지만, 전체적으로 이야기의 방향을 이끌어가는 역할만을 하는 편이었다. 조사 시간은 긴 편이었는데 대개 식당에 모시고 가 점심을 대접하면서 오전 오후에 걸쳐 온종일을 한 지점에서 보내는 방식이었다.

조사지점이 마음에 들면 여러 차례 갔다. 10여 차례 넘게 간 곳만도 5개 처이고 나머지 곳도 서너 차례씩 갔다. 자주 가면 겹치지 않는 화제로 이어갈 수 있고, 무엇보다 허물이 없어지면서 속에 있는 이야기까지 들을 수 있어 좋았다. 평균 1주일에 한 번 강릉을 오르내렸는데, 다른 지점을 들르다 모처럼 가면 왜 이리 오래 못 왔느냐며 기다리고들 있었다.

현지에 가 있지 않고 집에 있을 때는 조사해 온 녹음 자료를 들으며 정리하는 작업으로 채웠는데 그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힘겨운 일이었다. 일단 노트에 연필로 전사한 다음 거기에서 사전의 표제어가 될 만한 것을 골라 사전 형식의 파일을 만드는 작업이었다. 다음 현지에 갈 때까지 일단락 짓는 일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하루 10시간 넘게 컴퓨터 앞에서 보냈던 것 같은데 가히 질풍노도 시기였던 셈이다.

그러나 더 휘몰린 것은 교정 때였다. PDF로 교정보는 일이 서툴러 프린트해 놓고 보니 산더미 같은 게 숨이 막혔다. 서너 장 보고 나면 눈이 아팠고 글씨가 안 보이기 시작했다. 최종 원고를 꽤 꼼꼼히 보고 출판사에 넘긴 것 같은데 오타는 왜 그리 많은지, 그리 열심히 잘 찍는다고 찍은 고조 표기도 여기저기 빠져 있고, 어느 표제어 몇 번을 가 보라는 어깨번호가 잘못된 것, 심지어 표제어의 가나다순 배열이 잘못된 것까지, 7교까지 어디에 가 숨어 있다가 나타나는지 계속 나타났다(지금도 하나씩 둘씩 튀어나온다). 색인 만드는 일은 또 그야말로 기계적으로 1대 1로 대응시키는 일이 아니어서 막바지에 얼마나 진을 빼게 만들던지. 원고를 만들 때는 새 세계를 개척한다는 흥분이 있어 활력이 생겼는데 교정 일은 그저 진을 빼는 일이었다. 3,000쪽이 넘는 책을 보고 있노라면 지금도 숨이 차다. 돌이켜보면 하나하나 참으로 긴 여정(旅程)이었다.

3

앞에서 보듯이 《강릉방언자료사전》은 한 작은 지역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자료로 이루어졌다. 전국 단위나 도(道) 단위의 방언집은 지역 간의 차이를 보이기 위한 것이어서 조사 항목의 방언형만 채록하면 다음 지점으로 옮기는 방식을 취하는데, 이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여기서도 몇 지점을 나누어 조사하였지만, 그것은 지점 간의 차이를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료를 더 풍부하게 모으기 위한 것이었다.

그 결과 자연히 사전의 성격도 많이 달라졌다. 기존

의 방언집은 예문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있어도 곁가지들을 다 쳐내 단정하게 다듬은 것들이었다. 그런데 조사를 진행하면서, 방언의 세계에 깊이 빠지면 빠질수록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무엇보다 구어(口語)로서의 야성(野性)이랄까, 다듬지 않은 상태의 모습을 담고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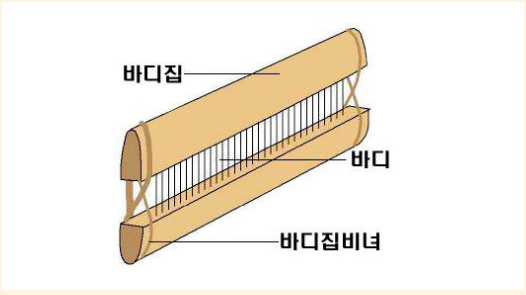
'머머(뭐뭐)', '인제', '저저' 등 흔히 군더더기라고 무시해 버리는 것들도 다 살리고, 평서문임에도 말끝을 유난히 높이든가 어떤 마디를 유난히 길게 빼는 등 운율적인 요소들도 화살표와 같은 기호로 최대한 표시하려고 하였고, 더욱이 고조나 음장과 같은 운소(韻素)는 표제어에서뿐 아니라 예문 안에서도 일일이 표기하였다. 또 예문은 되도록 몇 문장이 이어진 긴 형식으로 실었고, 또 개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여러 개씩 달았다. 한 단어의 뜻이 그럼으로써 잘 드러나기도 하지만, 예문이 문장 너머 담화의 특징까지도 나타내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였다.

이러면서 발견되는 것 하나는 방언 자료가 표준어만에 갇혀 있던 우리의 시각을 크게 넓혀 준다는 것이었다. 당장 국어사전의 표제어를 확충할 자료들이 계속 쏟아졌다. '감자눈', '가을방아/봄방아', '계수(契首)', '곶감전', '굴핏집', '내걸이', '내외종간(內外從間)', '누룩테', '단체기합', '대꽃(대나무꽃)', '동냥글', '떡안반', '못날(모내기하는 날)', '본달(윤달이 아닌 달)', '본니(의치가 아닌, 자기 본래의 이)', '본아들(본처의 아들)/본딸(본처의 딸)', '비녀쟁이', '빈동(貧洞)', '새끼공(새끼를 엮어 만든 축구공)', '새벽제사/초저녁제사', '설락목(雪落木/雪害木)', '아랫절(本寺)', '안택경(安宅經)', '우케멍석', '잉아올/사올', '월동초(越冬草)', '절논(寺刹 논)', '조상답(祖上畓)', '지금(地衾)', '침감(沈柿)', '콩서리', '확길', '흙부뚜막' 등등 국어사전에 올라 있지 않은, 그만큼 우리말을 살찌게 할 어휘들이 무척이나 많이 나타났다.

국어사전에 표제어는 올라 있으나 예문을 찾아 넣지 못한 것들이 많은데 그 빈자리를 채워줄 것들도 수없이 나타났다. '개(꿀벌이 유충이나 꿀을 저장하는 벌집)', '까치구멍', '낙종(諾從)하다', '너와집', '노제(路祭)', '늦동지', '답품(畓品/踏品)', '당달봉사', '독물(짙은 빛깔의 남빛)', '두가리', '목탄차(木炭車)', '밤늦(밤꽃)', '봉천답(奉天畓)', '사우(祠宇)', '식해(食醢)', '심(山蔘)', '안택(安宅)', '외측(外廁)', '이맛돌', '이불잇', '인권(引勸)하다', '인사태(人沙汰)', '자국눈', '자리틀', '잠실(蠶室)', '추천(鞦韆)', '취맥(取脈)하다', '탄저병(炭疽病)', '탯돌', '통일벼', '한축(寒縮)하다', '향교(鄕校)', '향합(香盒)', '혼백(魂帛)', '회소(回蘇)' 등등. 홍명희, 이기영 등 지난 세대의 소설에서나 겨우 볼 수 있는 '천추(遷推)하다'나 '자산(赭山)'과 같은 낯선 단어의 용례가 방언에서 나타나는 것도 고무적이었다.

특히 귀히 여겨지는 방언 자료는 국어사전에서 잘못 처리된 것을 바로잡아 줄 것들이었다. 국어사전에는 '(뜨거운 물에) 삶다', '(날씨가 찌듯이) 삶다', '(물이 있는 논의 노면을 고르게) 삶다'의 세 '삶다'를 동의어로 묶어 놓았는데, 강릉 방언에서는 앞의 두 '삶다'는 '쌂다'로 된소리가 되지만 마지막 것은 그렇지 않았다. 의미적으로도 논을 삶는 일은 별개 단어일 것이다. '(줄을) 당기다'와 '(입맛이) 당기다'도 국어사전에서 동일어로 묶었는데 강릉 방언에서 보면 전자는 '댕기다'의 '댕'이 고조임에 반해 후자는 '댕기키다'로 고조가 없을 뿐 아니라 피동접미사 '-키-'를 취하는 전혀 별개 단어였다.





국어사전에서 각각 '버덩'과 '내닫다'의 예문으로 올린 김유정의 "바람에 아름거리는 저편 버덩의 파란 벼 잎을 아득히 바라보았다"와 "그 알량한 집을 팔려 해도 단 이삼 원의 작자도 내닫지 않으므로 앞뒤가 꼭 막혔다"의 '버덩'과 '내닫다'는 강릉 방언에서의 뜻으로 읽어야 그 맥락이 제대로 풀린다(이참에 필자는 이 두 단어의 국어사전 뜻풀이를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죽살다'의 뜻풀이는 고어사전을 비롯하여 국어사전들의 치부(恥部)라 할 만한데 그것도 강릉 방언의 제대로 된 용법으로 바로잡을 수 있었고, 우리를 미궁에 빠뜨리는 '면내다'도 강릉 방언의 '메스내다'로써 거기에서 헤어날 길을 찾을 수 있었다. 국어사전에서 엉뚱하게 저녁 하늘의 노을로 풀이해 놓은 '까치놀'도 강릉 방언의 '까차놀'로써 바다에서 까치의 날개 빛처럼 희끗거리며 일렁이는 파도의 일종으로 바로잡을 수 있었다.

국어사전에서 부정확하게 되어 있는 것을 바로잡아 줄 자료가 많고도 많았는데 그중 다음 두 그림을 보면서 국어사전과 《강릉방언자료사전》에서 '바디집(바두집)' 및 '바디(바두)/바디집비녀(바구리)' 항을 비교해 보면 아직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4

반복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다투어 방언의 중요성을 외치면서도 정작 방언이 지니고 있는 가치를 제대로 발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해야 할 일을 못 하고 있다는 자각(自覺)조차도 없었다. 지금부터라도 급격히 사라져 가는 방언을 깊이 있게 조사하고 분석하여 우리말을 더 풍요롭게, 더 반듯하게 키워가는 일에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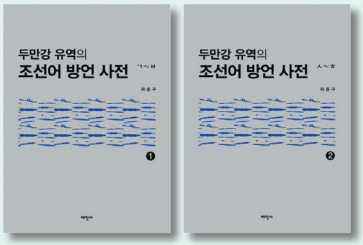


이익섭

1938년 강원도 강릉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와 동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교수를 비롯해 국어학회 회장, 국립국어연구원 원장, 한국어세계화재단 이사장, 국어심의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제1회 일석국어학상, 제33회 세종문화상 학술상 등을 수상했으며, 2022년 고향 강릉의 방언을 집대성한 《강릉방언자료사전》을 펴냈다. 현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다.

《두만강 유역의 조선어 방언 사전》의 편찬과 소회

글·사진 **곽충구**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1. 북부 방언과의 인연 및 편찬 동기

필자는 람스테트가 그의 논저에서 논거로 제시한 'N.K., N.K. dial.'이라 한 '북한 방언'의 성격과 그 출전을 살펴보다가 『A Korean Grammar』(1939) 서문을 통해 그 자료의 일부가 《試篇 노한소사전》(카잔, 1904)에서 전재한 것임을 알았다. 그 뒤 고(故) 고송무 교수께서 헬싱키대학의 '람스테트문고'에 소장되어 있는 이 사전을 보내주어 그 실체를 볼 수 있었다. 이 사전은 연해주 이주 한인의 한국어(함북 육진방언)를 키릴문자를 가공한 전사용 문자로 정밀하게 전사해 놓았다. 육진방언은 개신의 물결이 채 미치지 못하여 고립방언 또는 잔재지역 방언의 성격을 띤다. 때문에 옛 국어의 모습을 많이 간직하고 있다. 람스테트가 이 사전을 소중히 여긴 것은 그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한국어 역사의 재구 및 비교 연구에 이 사전을 이용했다. 한편, 1887년 학술원에서는 『한국언어지도집, Language Atlas of Korea』(1993)의 편찬에 착수하였는데 이 언어지도의 편찬사업에서 필자는 북한 방언 조사를 맡았다. 평안도를 제외한 북한 전역의 비분절음소와 어휘를 3년여 동안 군 단위로 조사하였다. 조사 과정에서 실향(失鄕)의 통한과 애환을 접하면서 그때만큼 통일을 염원한 적도 없다. 이런 실향의 한과 시름을 달래기 위해 편찬된 사전이 김이협의 《평북방언사전》, 김태균의 《함북방언사전》이다. 실향민들은 고향에서 누렸던 사유의 세계 그리고 전통적인 생활 문화를 그들의 방언으로 맛보고 또 되새기고자 했다.

이처럼 이런저런 일로 북부 방언과 인연을 맺으면서 필자는 점차 북부 지역의 언어, 역사, 문화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그리고 자료가 빈곤한 북부 방언을 폭넓고 정밀하게 조사할 필요를 느꼈다. 그러다가 중국 쪽 두만강 연안의 육진·동북 방언의 변종을 조사하고 사전을 편찬하게 된 것이다. 20여 년 동안 외국에서 방언 조사를 하면서 필자는 종종 알타이어학을 수립한 람스테트, 한어음운학의 기반을 닦은 칼그렌(高本漢) 그리고 오구라 신페이(小倉進平)를 생각하였다. 이들은 역사비교언어학이 풍미하던 시절 언어사의 재구나 비교 연구를 위해 외국의 험지를 누비며 방언 조사 연구에 헌신한 사람들이다. 그들의 집념과 학문적 위업은 필자에게 용기를 주었다.

2. 편찬의 목적

사전 편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① 문헌자료의 보완. 음운변화의 원리나 과정(규칙의 발생, 변화, 소실, 어휘 확산 등)의 탐색. ② 국어의 방언 분화나 언어지리학 연구의 기초 자료 수집. ③ 여진어(또는 만주어)의

잔재 조사 연구. ④ 중국 조선어 또는 중앙아시아 '고려말' 연구. 또 그들 언어가 이주 공통어(koine[1])로 발전하는 과정 연구. ⑤ 함경도 지방의 역사와 문화 관찰. ⑥ 중국 거주 한인들의 언어문화를 기록으로 보존.

3. 조사 지점과 제보자

조사 지점은 함북인들이 개척한 초기 이주촌으로 조선족자치주의 8지점이다. 현지 조사는 고 전학석 교수(연변대)의 도움이 컸다. 주 조사 지점은 훈춘시 경신진 회룡봉촌(敬信鎭 回龍峰村)이다. 경신진은 『용비어천가』 3장에서 오동(斡東)이라 한 바로 그곳이며, 『동국지도』, 『북새기략』(「북관고적기」)에서 금당(金塘)이라 한 곳이다. 지금도 변함없이 금당이라 부른다. 경신진의 소재지이다. 훈춘에서 경신진을 가려면 대판령이라는 큰 재를 넘어야 한다. 그 동쪽은 험준한 산줄기가 러시아와 국경을 이루고 서쪽은 두만강이 흐른다. 그 안에 팔지(八池)를 중심으로 넓은 평야가 있으니 1255년경 목조(穆祖) 이안사(李安社)는 천혜의 요지에 이주 정착한 셈이다.

경신진은 예나 지금이나 이처럼 외진 곳이어서 이곳 방언은 퍽 보수적이다. 주 조사지 회룡봉촌(도롱비)은 1882년에 개척된 마을로 북한의 경흥군 아오지와 마주하고 있다. 주 제보자 고(故) 박남성 선생은 자신의 방언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고 또 박학한 분이다. 이 분을 포함한 회룡봉촌의 노인들은 1995년부터 20여 년 동안 가족 이상의 끈끈한 정으로 필자의 조사를 도왔다. 이 지역어의 음운 면은 근대국어와 비슷하다. 어휘는 고어가 많이 잔존해 있기도 하지만 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형성된 특이 어휘도 많다. 종결어미도 특이하게 발달하였다. '아심태니꾸마'(고맙습니다), '무서하암둥?'(안녕하십니까?)처럼 낯선 말들이 쓰이는데 이런 말은 중앙아시아 고려말에서도 들을 수 있다.

이 밖에 육진 방언권으로 훈춘시 밀강촌(함북 경원, 온성 이주민), 도문시 월청진(종성, 온성), 용정시 삼합진



↑ **주 조사지:** 훈춘시 경신진 회룡봉촌의 모습. 멀리 보이는 산은 북한의 경흥군. 그 밑으로 두만강이 흐른다.



↑ 경신진 회룡봉촌 앞 두만강. 강 건너는 북한의 경흥군이다.

1) 'koine'는 본디 옛날 그리스의 방언들이 서로 접촉하면서 현대의 그리스어의 기반이 되는 언어로 발달한 것을 말한다. koine는 여러 유형이 있는데 그 하나가 이주로 인해서 생겨나는 '이주 koine(immigrant koine)'이다. 본고에서 koine는 중국의 조선어, 중앙아시아의 고려말도 한국의 여러 방언들이 서로 접촉 및 혼합이 되어 하나의 통일된 언어로 발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용한 것이며, 아직 학계에서는 koine의 번역어가 없어 원어를 노출시키고 있으나 굳이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공통어가 될 것이다.



↑ 도문시 월청진 마패촌. 앞산은 북한의 온성군

(회령)이 있다. 월청의 문오복 할머니는 10년 이상 필자와 모자처럼 지내며 조사에 응했다. 삼합은 일제 강점기 유이민(流移民)[2]들이 두만강을 건너 용정으로 가는 길목이었다. 그리고 동북 방언권 조사 지점으로 화룡시 용문향(길주, 명천), 용정시(길주, 명천, 회령), 화룡시 남평진(무산)이 있다. 남평은 험준한 장백산맥 너머 두만강 상류에 위치한다.

4. 조사 내용

① 『한국방언조사질문지』(정문연 어문학연구실, 1980). 기초 자료 조사.
② 「한국어 초분절음소 조사표」(학술원, 1986).
③ 어휘체계를 고려한 조사. 계열어 중심의 보충조사.
④ 구술 발화(통과의례, 세시풍속, 가옥구조, 친족어, 인체어, 민담, 전설 등).
⑤ 조사 지점간 교차 확인 조사. 신뢰도, 타당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조사.
⑥ 확인, 추가, 보충조사.
⑦ 『지역어 조사 질문지』(국립국어원, 2003).

방언과 표준어를 가리지 않고 조사 지역의 모든 언어 형식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조사 지역의 동사 '가다', '오다'는 표준어와 형태는 같지만 성조 등 발음과 뜻이 다르고 계열과 통합이 다를 수 있다.

기초 조사는 조사 지역 방언을 조감한 조사로 ①, ②의 질문지를 통해 이루어졌다. 위 질문지의 조사 항목은 체계보다는 전국적인 방언 분포를 보기 위해 선정한 것이므로 어휘체계를 고려한 보충 조사가 이어졌다. 이미 조사한 친족어의 빈칸을 친족 체계도를 보며 메운다거나 형태론적 측면을 고려하여 감각형용사의 빈칸을 메우는 일 등이 그런 예다. 이어 이주사, 민담, 전설, 세시풍속, 농경, 의식주, 통과의례 등을 구술 발화를 통해 조사하며 구어 말뭉치를 구축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표제어를 추출하고 또 앞서 집필한 미시 정보를 수정 보완하였으며 전사 일부를 용례로 삼았다. 그리고 관련어, 참고어, 어원 정보를 기술하고 보충하였다. 복수의 제보자가 제공한 각종 정보를 수습하여 종합한 다음 뜻풀이하는 일도 힘든 일이었다. 또 음성 특징이 중부방언과 달라 특별히 음성 전사에 유의해야 했다.

확인 및 추가 조사는 미시구조 전반에 걸쳐 이루어졌지만 특히 성조나 사물의 형태, 기능, 용도 등에 대한 조사에 집중되었다. 이때 조사한 부수 정보를 [참고] 란에 반영하였다. 가령, 호미는 중부 지역의 그것과 생김새가 다르다. 자루는 1m가 넘고 날은 정삼각형이고 날과 자루의 연결도 중부 지역의 그것과 다르며 또 서서 호미질을 한다. 파종 기구인 '드베', 운송 기구인 '발구' 등은 모두 얼개와 부속 명칭을 조사하며 사진을 찍고 기능, 제조 및 사

2) 역사학계 등에서 사용하는 술어이다. 이주민과는 다른 의미로 대개 나라를 잃고 외국을 떠도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용 방법 등을 조사하였다. '드베'와 '발구'는 오래전에 각각 한족과 만주족으로부터 유입된 것인데 이처럼 북부 지역에는 북방 이민족과 공유하는 문화적 요소들이 잔존해 있다. 여진어의 잔재도 그런 예다. 또 음식의 한 예를 들면, 함경도를 대표하는 음식의 하나인 밴세/밴세(만두의 일종)는 그 종류, 거죽과 소의 재료, 시기, 용도를 조사하였다. 이러한 조사는 이주 한인의 삶을 조명하고 그것을 언어로 재구성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 뜻풀이에 보충 설명을 하기 위해 여러 전적이나 논저를 참고하였으나 소략하다. 수정 보완 작업은 10여 년 이상 계속 이어졌다. 최종 교정 단계에서는 국제전화로 제보자에게 문의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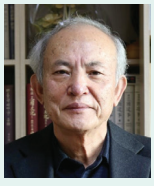
5. 사전의 구조

표제어의 선정과 배열 그리고 미시 정보의 제공 범위와 방법을 확정하는 일도 힘든 일이었다. 조사 지점과 제보자가 많다 보니 수많은 변이형을 어떻게 표제어로 올릴 것이며 또 변이형 간의 관계는 어떻게 이어줄 것인지 고민거리였다. 초고가 마련될 때까지 사전의 구조(거시, 미시, 내부)를 몇 차례 수정 보완하였다. 모든 미시 정보를 사전에 담는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이는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벅찬 일이었다. 표제어는 3만 2천여 항이다.

[표제어], [발음](성조형), [활용], [품사], [뜻풀이], [용례], [관용구·속담], [관계어], [관련어], [대응 표준어], [어원 정보], [부표제어], [분포 지역], [변이형]. 단, [참고]는 어느 위치에서나 필요한 경우에 삽입.

6. 사전 편찬의 소회

사전은 종합학이다. 여러 전공자와의 협업을 통해 편찬이 이루어져야 한다. 생활 문화에 관한 인류학적 지식이나 식물 명칭 등이 그런 예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사전의 성격상 홀로 교정을 볼 수밖에 없었던 것도 딱한 노릇이었다. 아쉬운 점도 많다. 구어 말뭉치를 구축할 때 이주사, 이성계에 관한 전설, 민담 등을 조사하였으나 만족스럽지 못하였다. 또 중국 이주 한인(또는 함북인)의 역사와 생활문화사를 기록으로 보전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였으나 미흡한 구석이 많다. 민족의식과 전통이 점점 사라지면서 중국 조선어도 점점 위축되고 있다. 전통적인 방언을 구사하는 노인들이 점점 줄어드니 후일을 기약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따금 유장한 민족사를 품고 말없이 흐르는 두만강 둑에 앉아 북한의 산야를 바라보며 이 분단의 비극이 언제쯤 끝나 남북이 대동(大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보곤 했다. 《겨레말큰사전》 편찬이 그 밑돌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또 한화(漢化)의 거센 물결 속에서 과연 중국의 교포들은 언제까지 모국어를 지켜낼 수 있을까. 폐교가 된 조선족 소학교 운동장을 맴돌면서 자주 해 본 생각이다. 이런 시대적 상황이 지친 발걸음을 재촉하여 무모한 사전 편찬에 매달리게 했는지도 모른다.



곽충구

충남 아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와 같은 대학 대학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방언조사연구원을 거쳐 충북대·동덕여대·서강대 교수를 역임했다. 3·4대 한국방언학회 회장을 지냈고 일석국어학상(2018)과 학범 박승빈 국어학상(저술 부문)을 수상했다. 2019년 《두만강 유역의 조선어 방언 사전》을 펴냈다. 현재 서강대학교 명예교수이다.

한글고전소설에 나타난 전라북도 방언의 아름다움

글 **이태영**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1. 전라북도 방언과 문헌

전라북도 방언을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자료는 지역민의 말이다. 삶의 현장에서 어르신들의 말을 들어보고 이해하는 현장 구어체 자료가 그것이다. 이미 조사된 자료로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펴낸 『한국구비문학대계』와 『한국방언자료집』이 있고, 국립국어원에서 펴낸 『지역어 자료 조사 보고서』, 『민족생활어 조사 보고서』가 있으며, MBC에서 만든 음반 〈한국민요대전〉[1]을 참고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국어사전인 《우리말샘》에서 방언을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전라북도 방언을 특징적으로 잘 드러내는 자료로는 '완판본 한글고전소설'과 '완판본 천자문' 등의 문헌에서 아주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국어사전인 《우리말샘》과 《한국민족대백과사전》에는 '완판본'이란 표제어가 나온다.

> **완판본(完板本)** 「명사」 『문학』 「001」 조선 후기에, 전라북도 전주에서 간행된 목판본의 고대 소설을 통틀어 이르는 말. 전라도 사투리가 많이 들어 있어 향토색이 짙다. 《우리말샘》

전라북도 전주에서는 1823년 『별월봉기』라는 소설에서 시작하여 1932년까지 '열여춘향수절가(춘향가), 심청가·심청전, 토별가, 화룡도(적벽가)'와 같은 판소리계 소설을 비롯하여 '홍길동전, 조웅전, 소대성전, 유충열전' 등과 같은 한글고전소설을 24종을 발간하였다. 그러니까 무려 110년 동안 주옥같은 전라도 방언이 한글로 된 이야기책에 쓰이고 있었던 것이다.

2. 완판본 한글고전소설과 전라북도 방언

완판본 한글고전소설 『열여춘향수절가』는 판소리 〈춘향가〉가 소설로 정착된 작품의 이름이다. 이 한 편의 소설에는 19세기에 쓰인 전라도 방언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대 전북 방언과 거의 같다. 특히 이 작품을 통하여 전라도 방언의 역사, 문화, 어휘의 특징, 음운현상 등을 엿볼 수 있다.

전라북도의 대표적인 음운현상으로 구개음화, 전설고모음화, 이모음역행동화, 원순모음화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음운현상은 완판본 다른 소설에서도 거의 같이 쓰이고 있어 이미 19세기에도 규칙적으로 쓰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구개음화: 짚은(깊은), 져울(겨울), 질구나(길구나), 심(힘), 세아리다(헤아리다), 성님(형님), 셔(혀), 슝악(흉악)

1) MBC가 1989년부터 1995년까지 남한 일대에서 수집한 토속민요(향토민요) 자료.

전설고모음화: 실픔(슬픔), 구실(구슬), 시물(스물), 질길(즐길), 질겁다(즐겁다), 목심(목숨)

움라우트(이모음 역행동화): 귀경(구경), 허수애비(허수아비), 애미(어미), 맥혀(막혀), 깩끼다(깎이다), 지팽이(지팡이)

원순모음화: 심운(심은), 높운(높은), 업운(업은), 나뿐(나쁜), 참우로(참으로), 짚운(깊은), 삼우며(삼으며), 거무(거미), 춤(침)

완판본 『열여춘향수절가』에서는 춘향이를 시중드는 등장인물로 '향단이'가 나오지 않고 모두 '상단이'로 나온다. 필사본 『남원고사』에서도 마찬가지다. 서울과 안성에서 발간된 경판본에서는 '향단이'란 등장인물이 나오지 않거나 아주 일부 책에서만 '향단이'로 나오고 있다. 조선 후기 당시의 전라도 사람들은 방언인 '상단이'로만 불리는 등장인물을 통해 희로애락을 즐긴 것이다.

이익 {상단아} 근듸 바람이 독ᄒᆞ기로 졍신이 어질ᄒᆞᆫ다 근듸 줄붓들러라(이애, 상단아 그네 바람이 독하기로 정신이 어질하다. 그넷줄 붙들어라) 〈열여춘향수절가上, 9ㄱ〉

'궁글다'는 실제로 전국적인 분포를 가진 아주 오래된 방언이다. 중세국어에서 '그울다, 구울다, 구을다'가 쓰였으니, '궁글다'는 '*궁글다〉*궁을다〉구을다〉굴다'와 같은 변천 과정을 겪었을 것이다. 전라북도에서 사용되는 '궁글다'는 중세국어 '구을다'보다 이전부터 사용되어 온 역사적인 어휘임을 알 수 있다.

ᄇᆡᆨ셩 소시 엄숙하게 보이랴고 눈을 벼랑 {궁글궁글}(백성이 볼 때 엄숙하게 보이려고 눈을 특별히 궁글궁글) 〈열여춘향수절가下, 4ㄱ〉 {궁글며} 〈완판조웅전, 50ㄴ〉

전라북도에서는 어르신들의 경우에 '넘어지다'보다는 '자빠지다'를 많이 사용하였다. 중세국어에 '졋바디다'가 쓰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자빠지다'는 '졋바디다〉졋바지다〉*젓바지다〉잣바지다〉자빠지다'로 변화를 한 것이다. 물론 '자빠지다'는 몸이 모로 또는 뒤로 쓰러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열여춘향수절가』에는 '업더지며 잡바지다'가 대귀로 나오는 것이다.

업ᄶᅥ지며 {잡바질} 졔 셔운찬케 가 량이면 몃날 몃칠 될 줄 모를네라(엎어지며 자빠질 제 서운찮게 갈 양이면 몇 날 며칠 될 줄 모를네라) 〈열여춘향수절가上, 45ㄴ〉

표준어 '호리다'에 해당하는 전라도 방언 '홀이다'는 '조금 그럴듯한 말로 속여 넘기다'는 의미이다. 이 단어가 '먹다'와 복합되어 '꼬아먹다, 돌라먹다, 속여먹다, 벳겨먹다'와 같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복합동사로서 사용된다.

날 {홀여먹난} 불여수냐(날 호려먹는 불여수냐?) 〈열여춘향수절가上, 33ㄴ〉

문학작품에서 의성어와 의태어는 현상이나 사실을 묘사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휘이다. 이러한 어휘들을 『열여춘향수절가』에서도 엿볼 수 있다.

양 볼ᄐᆡ기가 {옴옥옴옥} 코궁기가 {발심발심} 연기가 홀홀 나게 푸여 물고 나셔니(양 볼태기가 오목오목 콧구멍이 발심발심 연기가 펄펄 나게 피여 물고 나서니) 〈열여춘향수절가下, 27ㄱ〉

단장 밋틔 ᄇᆡᆨ두름은 함부로 단이다가 ᄀᆡ한틔 물여난지 짓도 쌔지고 달리을 징금 ᄲᅳᆯ눅 {ᄲᅮ루룩} 우름 울고(단장 밑의 백두루미는

함부로 다니다가 개한테 물였는지 깃도 빠지고 다리를 징금 낄룩 뚜루룩 울음 울고) 〈열여춘향수절가下, 29ㄴ〉

다음은 『심청전』에서 곽씨 부인이 심청을 낳고 몸이 쇠약하여 죽는 모습을 표현한 문장이다. 전주에서는 딸꾹질을 '태깍질'이라고 하였다. 완판본 『심청전』에 쓰이는 '패깍질'은 남원 운봉 지역의 방언이다. 남원 운봉은 경남과 인접한 지역으로 이 방언 어휘는 접촉 지역의 혼태형이다.

그러니까 '픽각질'은 전남과 경남에서 사용하는 '포깍질'과 전북에서 사용하는 방언 '태깍질'이 서로 섞이면서 '패깍질'을 만든 것이다. 판소리 박동실 바디 〈심청가〉와 정응민 바디 〈심청가〉에서는 '폭각질'로 되어 있다. 이를 통하여 남원의 동편제 판소리 사설이 전주에서 소설로 발간된 것을 알 수 있다.

{픽각질} 두세 번의 숨이 덜걱 지니(딸꾹질 두세 번의 숨이 덜컥 지니) 〈심청전上, 8ㄱ〉

15세기 국어에 '고디듣다'로 나오는 '곧이듣다'는 현대 국어사전에서는 복합어로 다루면서 '남의 말을 듣고 그대로 믿다.'라는 뜻을 갖는다. 완판본 『퇴별가』에 나오는 이 어휘는 전라 방언에서는 '믿다'의 의미를 갖지만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며, 특히 의문문일 경우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크다. 현재 전북 방언에서도 많이 쓰는 어휘이다.

톡기ᄀᆞ {고지드러}(토끼가 곧이들어) 〈퇴별가, 15ㄱ〉

션여더리 {고지 듣고}(선녀들이 곧이듣고) 〈퇴별가, 19ㄴ〉

3. 『전라북도 방언사전』과 전북 방언

완판본 『열여춘향수절가』에는 춘향과 이도령이 이별하는 장면이 나온다. 춘향이는 이별을 고하고 한양으로 떠나려는 이도령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춘향이의 변하는 얼굴 모습에서 그 심정을 자세히 이해할 수 있다.

춘향이 이 말 듯더니 고닥기 발연변ᄉᆡᆨ이 되며 요두졀목으 불그락푸르락 눈을 {간잔조롬하게} 쓰고 눈셥이 ᄉᆞᆨ쏫하여지면셔 코가 발심발심ᄒᆞ며 이를 ᄲᅩ도독 ᄲᅩ도독 갈며 온 몸을 쑤순입 틀덧하며 ᄆᆡ 쉉 차난 듯 하고 안던이 허허 이게 웬 말이요 〈완판본 열여춘향수절가 上, 37ㄴ〉

(춘향이 이 말을 듣더니 별안간 성을 내며 얼굴이 변하여 머리를 흔들고 눈을 굴리면서 붉으락푸르락 눈을 간잔지런하게 뜨고 눈썹이 꼿꼿하여지면서 코가 발씸발씸하여, 이를 뽀도독 뽀도독 갈며, 온 몸을 수숫잎 틀듯하며, 매 꿩 하는 듯하고 앉더니 '허허 이게 웬 말이요.')

2021년 《전라북도 방언사전》이 최종 발간되었다. 수록된 표제어가 11,028개이다. 이 방언사전에서는 방언에 대해 올림말 정보를 '표제어, 어원, 품사, 발음, 활용형, 대응어, 뜻풀이, 용례, 관련어, 해설' 등 국어사전의 표준어 올림말 정보와 같이 제시했다는 점이 매우 특징적이다. 물론 단어에 따라 사용된 올림말 정보는 다르다. 어휘에 따라 참고할 수 있도록 해설이 포함된 점도 매우 독특한 사전 편찬 방법이다. 용례를 얻기 위해 전라도 방언을 다룬 문학작품은 물론, 앞에서 언급한 『한국구비문학대계』를 비롯한 각종 방언 자료, 완판본 한글고전소설 일부, 단행본, 논문을 활용하여 용례를 13,527개를 제시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전라북도 방언사전》에서 '간잔조름하다'의 표제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관련어로 제시된 이형태를 보면 아주 다양하게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작품에 따라서 '건전주름허다'로도 많이 쓰이고, 전북 군산 출신인 채만식의 작품에는 '갠소롬하다, 간소롬하다'로도 쓰이고 있다.

간잔조름하다 형 [대응어] 간잔지런하다.
졸리거나 술에 취하여 위아래 두 눈시울이 서로 맞닿을 듯하다.
¶ {간잔조름한} 눈으로 바라보는디 미치겄어.
관련어 간잔조름허다, 간잔주름하다, 갠잔주럼하다, 갠잔주롬하다, 갠잔주름하다, 갠잔즈럼하다, 갠잔즈롬하다, 갠잔즈름하다, 갠잔지럼하다, 갠잔지롬하다, 갠잔지름하다, 건전주름하다, 건전주름허다.

4. 방언의 기능

"호랭이 물어가네!"

전라도에서는 '호랭이 물어가네!'라는 관용표현을 사용한다. '아이고! 호랭이 물어가네!'라고 하면 조금 센 표현이다. 이 표현은 '뜻밖의 일이나 상황'에 대해 깨달음을 나타내는 관용표현이다. 뜬금없이 일어나는 일이나 소식이 없이 오는 일 등에 주로 사용된다. '호랭이 물어가고 자빠졌네.' 구문은 마음에 들지 않은 일이나 뜻밖의 상황에 대하여 강조하면서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관용표현이다. 사실 '호랭이'를 이용하여 비슷한 뜻이 아주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국어사전에서 이러한 전라도에서 사용되는 관용표현을 찾기는 어렵다. 만일 국어사전에서 이러한 표현을 찾아서 쓰라고 한다면 우리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심지어 '호랑이 물어가네'라는 표현으로는 전라도에서 사용하기가 어렵다. 반드시 '호랭이 물어가네'의 표현이어야 한다.

개인이 느끼는 정서는 사람마다, 한 지역의 공동체마다 매우 섬세한 특징을 갖는다. 그 공동체가 가지는 지역과 문화와 역사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이처럼 다양한 느낌의 표현을 획일화된 하나의 표준어로 대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가 갖는 다양한 느낌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말은 지역의 방언이다.

언어는 대체로 '제보, 표현, 지령, 친교, 심미, 메타언어' 등의 기능을 가진다. 그런데 방언은 '역사와 문화의 전승'과 '지역성의 표시'라는 기능을 더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이태영(2019), 「한국어 방언의 기능에 대하여」, 『제주어』 2, 14-45.
이태영(2020), 「일상적 관용표현 '호랭이 물어가네'의 용법과 의미 – 전북 방언을 중심으로 –」, 『어문론총』 86, 31-57.
이태영(2022), 『완판본 한글고전소설의 서지와 언어』, 역락.



이태영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전북대학교 박물관장, 전북대 문화재 위원, 전주완판본문화관 운영위원,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심의회 위원, 한국어지식대사전 편찬위원, 국어문학회·한국언어문학회·국어사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전북대학교 명예교수이다.

느림과 여유의 충청남도 방언

글 **김정태** 충남대학교 교수



충청 방언이란 용어가 등장한 것은 그리 오래전이 아니다. 이전에는 충청 방언을 호남 방언 속에 넣거나 경기 방언 속에 넣었었기 때문이다. 독자적인 방언적 특징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었을까. 그러다가 개별 방언으로서의 독자성을 찾게 되면서 하위 방언으로 충청 방언이 등장하였다.

충청 방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표현이 있다.

"아부지! 돌 굴러가유~"

충청 방언의 독특한 말의 가락이다. 연전에 충청 방언의 보조사 '-요'를 '-유'라고 말하는 지리적 분포를 살펴본 적이 있다. 이는 '충남 중북부와 충북 서부'에서 적극적임을 확인하였는데, 2, 3차 방언권으로 구획한다면 충청 방언을 중부 방언의 하위 방언으로 설정할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하다. 중부 방언의 하위 방언인 충청 방언은 다시 남북의 차이를 들어 '충남 방언, 충북 방언'이라 부를 만하다. 그중 충남 방언을 동서로 구분하거나 남북으로 구분하는 학계의 논의도 있었다.

따라서 충남 방언은 현재의 충남 지역과 대전시, 세종시를 아우르는 지리적 공간에서의 언어이다. 행정구역상 북쪽의 경기도와 남쪽의 전라도 사이에 자리잡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충북, 서쪽으로는 서해에 접해 있는 지역이다.

한국어는 우리나라 여러 지역에서 방언, 즉 사투리의 모습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다. 즉 한국어는 개별 방언들의 총체이다. 방언은 오랜 시간을 두고 대대로 이어져 오며 만들어진 지역의 토종 언어이다. 전라도 사람들에게는 전라 방언이 있고, 경상도 사람들에게는 경상 방언이 있는 것처럼, 충청도 사람들에게는 충청 방언이 있다. 또한 충남 지역의 토박이

> “대표적인 충남 방언의 특징은 말씨, 말투와 같은 말의 가락에서 말꼬리를 길게 빼서 늘어뜨린다는 점이다. 말끝을 길게 빼는 것은 다른 지역과 달리 말의 길이를 중히 여긴다는 뜻이다.”

들이 세계를 바라보고 인식한 것을 담아 놓은 충남 방언도 있다.

이들 각 지역의 방언들은 모두 한국어이면서 서로 다른 점을 갖고 있다. 지리적 장애와 문화 접촉의 단절로 지역에 따라 방언이 다양하게 형성되고 방언들 사이에도 다름이 생긴 결과이다. 충남 방언도 금강과 차령산맥이라는 지리적 장애가 그 형성의 주된 요인이 된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국어 방언의 연구는 개별 방언의 연구에 집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결실이 오늘날 방언 연구의 기틀이 되고 방언을 통한 지역의 문화를 찾는 데도 이바지했다고 할 수 있다. 충남 방언도 예외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 방언에 대한 관심은 다른 지역에 비해 소홀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아무래도 충남 방언이 중앙어와 인접해 있음으로 인해 유사하고, 따라서 전라도 경상도 방언들과 달리 뚜렷하게 드러나는 특징이 많지 않다는 데 기인한 것으로 본다.

그래도 방언학자들에 의한 충남 방언 연구가 더러 시도된 바 있지만, 지엽적인 시, 군 지역어의 연구에 편중되어 있다. 그리고 향토학자들에 의한 지역어 자료집 성격의 몇몇 사전이 있을 뿐이다. 충남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연구와 사전 또는 자료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왜냐하면 충남 사람들에 의한 충남 방언에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사용하는 독특한 표현이나 어휘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충남 방언의 특징이라 부를 만한 것들이다. 대표적인 충남 방언의 특징은 말씨, 말투와 같은 말의 가락에서 말꼬리를 길게 빼서 늘어뜨린다는 점이다. 말끝을 길게 빼는 것은 다른 지역과 달리 말의 길이를 중히 여긴다는 뜻이다. 느릿느릿 말하는 듯, 말끝을 다소 길게 빼는 것은 말꼬리에 한두 박자를 더해 얹어 준 것인데, 듣는 사람에게는 ‘느린 것’으로 인식이 되어 충남 방언, 또는 충청 방언의 특징으로 일반화된 것이다.

긴 말꼬리에서 연유된 느리다는 인식은 행동이 느리고 그래서 게으르고 답답해하는 것에 연결되어 무엇보다 충청도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하였다. 실제와 달리 행동이 민첩하지 못하고 반응이 늦어 굼뜬 사람들이라고 빗대는 것이다. 그래서 순박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으로 특정화되어 드라마나 영화, 소설 속의 인물로 등장하기도 한다.

“서둘지 말구 셔 가면서 셤셤덜 혀~”

“이따가 대포 한 잔 허넝거 말여~, 워떠~?”

“좀, 지둘러 봐유~, 그랴, 됐지 뭐~, 안 그랴?”

“에구, 시상이, 속상히서 워쩐대유~, 괜찮어유~”

그러나 느리다는 인식이 결코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점잖고 예의 바르며 여유 있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그려내고 있기 때문이다. 즉 느린 듯하지만 유연함이 있고 여유로움이 묻어나는 말투이다. 여유 있는 충청도 사람들의 기질이요, 충남 방언의 매력이기도 한 것이다.

"이짝저짝 다 돌어댕기메 찾어봐두 읍씨유~"
"똥뀐 늠이 됩때 화럴 내능구만유~"
"그집 샥씨가 스산이서 왔는디 음칭이 이뿌댜~"
"이응선(영선)이가 온댜. 안 온댜~?"

특히 말꼬리를 길게 빼는 말투는 보조사 '-요'를 '-유'로 말할 때와 말을 끝맺을 때 사용하는 종결어미 '-대, -ㄴ(는)대'에서 '-대'를 '-댜'로 길게 늘어뜨려 말할 때 두드러진다.
누군가가 하고 있는 말을 그만두거나 행동의 진행 중단을 요구할 때, 경상도라면 "치아 뿌라!", 전라도는 "하지 마랑깨" 정도일 텐데, 충남에서는 "뭐여~ 관둬~"처럼 지역에 따라 다양한 표현들을 만날 수 있다.

"엥간히 혀!"

그러나 "엥간히 혀!"와 같은 조용한 표현은 충남 방언에서 만날 수 있는 더 강한 경고성 발언이다. 낮은 목소리로 점잖게 "-혀~!"하고 말끝을 늘어뜨릴 때의 말투, 충남 방언에서만 느낄 수 있는 서늘함이다.
이와 같이 충남 방언은 말끝을 길게 늘어뜨리니까 야리끼리허거나(아리송하거나) 밍기적거리는(미적미적하는) 듯하여 속이 터지는 인상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얌즌헌 말투로 보문 느싯허게(여유 있게) 지둘르넌(기다리는) 여유가 있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직설적이지 않고 신중한 배려가 들어 있기도 하다. 여기에 구수룸헌(구수한) 맛도 난다. 때에 따라서는 승깔두 부리지만 말이다.
또한 같은 지역 사람이라면, 상대방의 말속의 높낮이나 강세와 같은 말투 정도로도 대략 같은 지역 사람인지 아닌지를 짐작할 수 있다. 나아가 특징적인 어휘의 사용으로도 알 수 있다. 표준어인 부사 '얼른'에 대해 '퍼뜩'을 쓰면 경상도 사람이고, '언능/싸게'를 쓰면 전라도 사람이다. '혼저'[혼저]를 쓰면 제주도 사람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충남 사람들은 '얼른'에 대해 "어여 와~, 어여 가~"처럼 '어여'를 사용한다.

"원제부텀 해줄규? 쬐끔만 지둘러바~"
"시상이 맘대루 되넌게 워디 있겄냐?"
"그게 월마간디 사 주덜 못헌겨? 기냥 사 주문 안 되나?"

그리고 의문사에서 반모음 w 첨가에 의한 '어-'의 '워-'로의 실현도 충남 방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두드러진 특징이다.
이처럼 충남 지역의 사람들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사용하는 말투나 어휘가 분명히 있다. 이런 것들이 충남 방언의 특징이라면 이는 충남 지역이라는 공간에서 살았던,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가 축적된 귀한 문화유산이다. 더 이상 과거의 케케묵은 유물이 아니고, 동물원의 희귀 동물처럼 우리에 가두기만 할 것도 아니다. 충남이라는 공간의 문화적

> 건축물이 과거의 삶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유형 문화유산이라면 우리의 충남 방언은 무형 문화유산이라 할 만하다.

가치를 키워갈 자원이다. 따라서 건축물이 과거의 삶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유형 문화유산이라면 우리의 충남 방언은 무형 문화유산이라 할 만하다.

그런데 오늘날 방언이 처해 있는 위치는 매우 불안정하다. 문화적 가치를 운운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교양 있는 표준어 교육에 밀려 젊은 세대에게는 점점 잊혀 가는 유물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즉 방언을 구사하는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의 연결 고리가 없어 보인다. 세대 간 이어질 사회적 장면의 부재로 충남 방언도 젊은 세대에게서는 사용되지 않거나 들어보지도 못하는 이국적인 외래어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칫 충남 방언에 방언이 없는 위기가 오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

오늘날은 문명의 발달로 말의 변화 주기가 빠르다. 교통의 발달, 인구의 이동과 도시 개발, 매체의 발달 등은 '우리의 것'을 소멸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소중한 자산인 충남 방언도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 있다. 방언을 보존하고 그 가치를 제고할 노력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것이다. 방언이 사라진 충남 방언을 맞기 전에 더욱더 꼼꼼하게 조사 정리 보존하고 활용 방법까지도 강구해야 한다.

사전이 어휘의 뜻풀이에 국한하지 않고 많은 관련 정보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말인 모든 방언까지도 잘 선별하여 수용해서 제공해야 진정한 한국어 사전이라 할 수 있다. 국어 규범으로서의 표준어만이 국어사전에 담기는, 표준어 사전이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김정태

목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전임강사·조교수, 충청문화연구소장, 국가지명위원회 위원(국토교통부), 한국지명학회·한국국어교육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충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이다.

미완이 아닌 완성된 내일을 그리며

북측 협의용 《겨레말큰사전》 가제본을 만나다

글 **권민경** 미술평론가 | 사진 **이효영** 사진작가

근래만큼 '한국어'에 대해 깊이 생각한 적이 또 있을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어로 글을 짓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모어이기 때문에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최근 방탄소년단과 오징어게임 등 케이(K) 콘텐츠 열풍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습자가 계속 늘고 있다는 보도를 보며 되레 모국어 사용자로서 한국어의 미래를 고민하게 만드는 지점들이 생겨났다. 인구 감소와 핵가족화로 인한 언어 전승의 위기와 도시화와 대중매체로 인한 방언 소멸의 위기, 언어 비속화와 세대 차이 심화, 외국어의 범람, 여기에 남북 분단으로 인한 언어의 이질화까지 더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어'는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알던 것처럼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어떻게 한국어를 남겨야 하나.

이런 상황에서 《겨레말큰사전》 편찬 작업은 무척 특별하게 느껴진다. 같은 말글을 사용하지만 서로 떨어져 지낸 시간만큼이나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남북의 말, 그리고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말을 정리하는 일은, 우리가 사용하고 나아가 세계인이 사용할 우리 '겨레말'을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일일 것이다.

《겨레말큰사전》 가제본 펼쳐보기

일찍이 남북이 만나 '공동회의'의 형태로 《겨레말큰사전》을 함께 만든다는 소식은 전해 들은 적이 있었는데, 가제본이 제작돼 나왔다는 것은 기사를 통해 조금 늦게 알았다. 북측 협의용으로 제작한 '대외비' 사전으로 외부에 판매되거나 배포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북측 협의용 《겨레말큰사전》 가제본(아래 '가제본')은 지난 2021년부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있는 국회의사당 본관 4층에서 전시 중이다. 사업회와 국회 측의 도움을 받아 직접 전시를 찾아가 봤다. 국회에 전시돼 있는 가제본을 실물로 보고 처음 든 생각은, 그 내용이 방대하다는 것이었다. 아직은 종이사전들이 유효했던 학창 시절, 10권이나 20권을 한 세트로 하는 백과사전을 본 뒤로 이런 구성의 종이책은 정말 오랜만에 봤다. 권당 1,500~1,700쪽 총 10권 1질로 구성된 가제본은 실물을 보기 전까진, 보통의 한 권짜리 사전을 생각했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분량이었다. 총 17,810쪽에 달할 만큼 한 권, 한 권이 무척 두꺼웠다. 한편으로는 이 사전에 수록돼 있다는 '30만 7천 개' 단어의 수를 생각해 보면 사실 놀







↑ 국회의사당 4층 복도에 전시된 가제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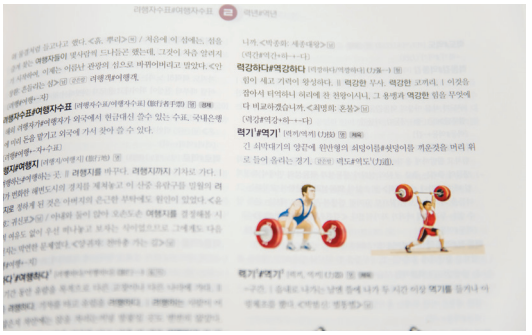


↑ 사업회 자료실에 비치된 가제본

랄 일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다.

사전은 한 명이 다 옮기기엔 힘들 정도로 무거웠다.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고서야 책을 책상 위에 펼쳐 놓을 수 있었다. 펼친 면이 한눈에 들어왔다. 텍스트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삽화가 많이 들어있어서 얼핏 보아도 꽤 다채로웠다. 삽화는 사전의 원고만이 아니라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줬으며 남, 북 그리고 해외동포 작가가 함께 삽화를 그렸다는 것이 더 의미 있게 다가왔다. 남과 북의 학자와 편찬원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의견을 나누며 사전 편찬에 매달리는 모습이 떠올라서였을까. 책의 내용을 살피다 보니 자못 뭉클했다.

그런데 특별한 부분이 눈에 띄었다. 아직 남북 간에 합의되지 않은 두음 법칙, 사이시옷 부분마다 '#'이라는 기호를 가운데 두고 단어를 함께 적어 놓았다. 다른 사전에서 볼 수 없는 장치였기에 독특했다. 또한 사전치고는 많은 용례가 실려있다는 점도 특별했다. 하나의 단어를 남한과 북한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예시가 실렸고 더 나아가 중국과 러시아의 용례도 명시되어 있었다. 한국어를 많이 사용하는 지역으로 연변이나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지역 일부도 포함된다. 남북이 함께 만드는, 남북 언어와 해외 동포어를 아우르는 사전으로서 특징을 엿볼 수 있었다. 책의 내용이 이렇게 풍부해지고 양적으로도 많아진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실제로 엄청난 분량에 편찬위원들도 때로 편찬 작업을 포기하고 싶어질 정도였다고 했다. 그런데도 그때마다 겨레말을 지킨다는 사명이 그들을 다시 이



끌었고, 결국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 것이다.

아직은 미완성이지만

다시 말하지만, 《겨레말큰사전》은 아직 완간된 사전이 아니다. 이렇게 방대한 사전이 아직 미완성인 까닭은,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공동회의를 열지 못해 북측의 편찬위원들과의 합의 작업이 미뤄졌기 때문이다. 총 30만 7천 개 가운데 아직 합의해야 할 단어가 18만여 개나 더 남아 있다. 7년 동안 만나지 못한 북측에 가제본을 전달하고 《겨레말큰사전》을 하루라도 빠르게 완성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사업회 어디에서나 느낄 수 있었다. 공동회의가 재개되면 여기에 북측에서 새로 집필한 원고도 수록될 예정이라 하니 최종 완성된 《겨레말큰사전》은 더욱 거대한 겨레의 사전이 될 것이 분명하다. 언제쯤 이 가제본이 북측에 전달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일단 중단됐던 공동회의가 재개돼야 할 것인데, 그런 것들은 사업회의 힘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자신을 기록하는 일, 사전 편찬

예술 행사를 기획하고, 혹은 예술 행위를 하는 경험 속에서, 나는 아카이브(Archive)가 얼마나 중요한 작업인지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물론 작품이라는 결과물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에 관한 창작의 과정 자체도 하나의 경험적 유산이며 예술 작품을 이루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유로, 중요한 역사의 현장들 역시 아카이브가 필요하다.

사업회를 설명하는 글에서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을 '미리 만나는 통일', '작은 통일의 경험'으로 수식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남과 북의 다양한 학자들이 편찬사업에 매달린 만큼, 그 과정에선 수많은 이야기가 탄생했으리라. 그 과정 또한 궁금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쩌면 학자가 아닌 작가의 관점이겠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사전의 편찬 과정은 우리 민족의 중요한 역사 기록물이지 않은가. 또한 사전 편찬은 그 행위 자체로, 한국어를 기록한다는 의미에서, 하나의 아카이브가 된다. 특히 《겨레말큰사









전》은 수많은 용례에 문학 작품을 인용했다는 점에서도 여러모로 훌륭한 기록물이다.

2015년, KBS 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의 기록물들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바 있다. 생방송 녹화 원본 테이프는 물론이고 담당 프로듀서 업무 수첩, 이산가족이 직접 작성한 신청서, 일일 방송진행표, 큐시트, 기념음반, 사진 등 다양한 기록물이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전 세계에서도 유례없으며, 또한 재현할 수 없는 기록으로 인정된 것이다. 이는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얻을 수 있는, 슬프지만 뜻깊은 유산이다.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하는 과정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수한 편찬 형태이다. 남북교류의 중단으로 사전의 편찬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카이브에 대해 말하는 것이 조금 섣불러 보일 수 있으나 그런 기록 작업들까지 꿈꿔볼 만큼, 《겨레말큰사전》 편찬은 중요한 사업이며, 꼭 완성돼야 할 사업이다.

사전 편찬은 우리를 기록하고, 남기고, 전하는 일이다. 나라의 정책과,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흔들릴 일이 아니다. 언젠가 가제본이 북측에 전해지고, 결국 온전한 《겨레말큰사전》이 편찬되는 날이 올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말이 발전하고 변화하는 것에 맞추어 겨레말을 계속 연구하고 기록하는 과정도 중요하다. 그런 과정이 이어지려면 우선 남북의 학자들만이라도 자유롭게 지식을 공유하는 환경이 마련됐으면 한다. 더 나아가 이 사전이 앞으로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전자 자료로 공개되는 것도 그려본다. 세계의 더 많은 사람이 쉽게 《겨레말큰사전》에 접근할 수 있다면, 이 사전은 오래오래 생명력을 갖고 제 기능을 하리라. 더불어 그 사전으로 배우고 쓰게 될 우리의 모어, 한국어 또한 그러리라 믿는다.

우리 민족에게는 '겨레'로서의 화합을, 필자 같은 작가에게는 작품의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겨레말큰사전》. 하루빨리 완성되어 또다시 벅찬 마음으로 그 책장을 넘겨볼 수 있길 바란다. 지금은 '가제본'으로서 기록된 《겨레말큰사전》이 수십 차례의 공동회의를 더 거쳐 완간되는 날 나는, 또 우리는 역사적 기록물로서 《겨레말큰사전》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권민경

2011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시가 당선됐으며, 2018년 〈대안공간 눈 신진평론가 육성 사업－새싹이음프로젝트〉로 미술평론을 시작했다. 시집 『베개는 얼마나 많은 꿈을 견뎌냈나요』, 『꿈을 꾸지 않기로 했고 그렇게 되었다』 등이 있다.

뒷받침과 안받침

글 **이형주** 겨레말큰사전 선임편찬원





주변 어른들께 아직 미혼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사람 인(人)' 자의 뜻을 되새겨 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한자 '人'은 두 획이 서로 기대어 있는 모습이며 무릇 사람이란 그 모습처럼 서로 의지하고 기대어 살아가야 하는 존재니, 얼른 장가가라고들 하신다. 따뜻하고 아름다운 풀이라고 생각되면서도, 서체에 따라서는 오른쪽 획이 일방적으로 왼쪽의 긴 획을 받쳐 들고 있는 모양새라 아주 개운치는 않다. 어른들이 하신 말씀과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 실제 인간관계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도 들고.

"뒤에서 지지하고 도와주는 일, 또는 그런 사람이나 물건"[1]을 가리키는 말로 남에서는 '뒷받침'이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된다. 여기에 '하다'나 '되다'가 붙은 '~을 뒷받침하다', '~이 뒷받침되다'와 같은 표현 역시 자주 확인되는데, 물질적·경제적 지원이나 사회문화적 기반, 논리적 근거, 능력 등 다양한 유형의 도움을 나타내는 데 쓰인다.

▣ 아내의 **뒷받침으로** 딴 박사학위 같은 것은 이제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개똥보다 못하게 됐다.《함정임: 그의 즐겨찾기》

▣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있나요?《정미경: 파견근무》

▣ 주거 환경으로 미루어봐서는 부모의 재력도 어느 정도는 **뒷받침되어야** 입사할 수 있는 기숙사 같았다.《이문열: 변경》

1) 《표준국어대사전》의 표제어 '뒷받침'의 뜻풀이이다.



북에서도 같은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 다만 표기는 '뒤받침'으로 적는다. 그런데 북에서는 이 '뒤받침'보다 남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안받침'이라는 표현을 더 자주 사용한다. '안받침' 역시 '하다', '되다'가 붙어 다양한 도움을 표현하는 데 쓰인다.

▣ 기계번역을 성과적으로 진행하며 그 질을 높이는 문제는 언어리론적 **안받침과** 콤퓨터수준, 프로그람의 합리적인 작성과 관련된다.《기계번역은 어떻게 실현되는가》(북)

▣ 만약 자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환히 꿰들고 사전에 조직사업을 잘 **안받침했더라면** 그런 불미스러운 충돌이 생기지 않았을것이였다.《푸른 과원》(북)

▣ 이것은 몇페지 되지 않는 문장이지만 그의 복잡한 로동과 지혜의 결실이였고 자기를 희생하고 남편을 섬긴 안해의 정성이 **안받침된** 론문이기도 하였다.《미지의 세계에로》(북)

앞서 말했듯이 '뒤받침'은 북에서도 빈도 높게 쓰이기 때문에 북의《조선말대사전》에 실려 있다.[2] '안받침'의 경우 남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 아님에도《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다.[3] 남북 모두 '뒷받침/뒤받침'과 '안받침'을 규범 어휘로 인정하고 있지만 실제 쓰임에서는 차이가 있는 셈이다.[4]

그렇다면 '뒷받침/뒤받침'과 다르게 남에서 잘 쓰지 않는 '안받침'은 북에서 단독으로 생겨난 표현일까? 우선 20세기의 '뒷받침'부터 살펴보도록 한다. '뒷받침' 또는 '뒤받침', '뒷밧침' 등은 1950년대 신문 자료를 통해 그 용례를 확인할 수 있다. 비슷한 시기에 서로 다른 표기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1933년『한글마춤법통일안』이 제정된 이후에도 1950년대까지는 표기상의 혼동이 여전히 남아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5]

▣ 이억 불에 달하는 물자의 **뒷받침으로** 현행 예산연도 말까지에는 적자 재정에

2) 뒤받침 「명사」 ① 뒤에서 받쳐주는 것 또는 그 물건. ② 뒤에서 보살펴주고 도와주는 것.《조선말대사전》
3) 안받침 「명사」 안에서 지지하고 도와줌.《표준국어대사전》
4) 관련하여 '밑받침(하다/되다)' 역시 남북 모두 자주 사용하고 양쪽에서 규범 어휘로 인정하고 있으며, '속받침(하다)'은 북에서만 규범 어휘로 인정하고 있는 어휘이다.
5) 당시 신문 자료에는 국한문 혼용 표기가 사용되었으나 편의를 위해 일부 어휘의 한자만 병기하고 한글로 작성하였다. 또 문장 부호나 띄어쓰기 역시 지금의 표기법에 맞게 수정하였다.

기인한 「인푸레」[6]의 앙진(昂進)은 우려할 바가 아니라고 언명하였다.〈적자 재정, 이백사십억으로 억제, 《조선일보》 1면, 1953. 9. 28.〉

▣ 원칙에는 예외가 있고 이상에는 현실이 **뒤받침하도록** 조문(條文)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경제조항 개헌안과 공청회의 효과, 《경향신문》 1면, 1954. 2. 5.〉

▣ 무법(無法)을 자행(恣行)케 해놓고서 후에 법에 **뒷밧침을** 찾아내군 한다는 것은 법을 어겨 남의 권리를 침해해 놓고서도 처벌만을 받지 않겠다는 소리가 아니고 무엇일까?〈강변·궤변·허언(强辯·詭辯·噓言), 《동아일보》 1면, 1955. 3. 14.〉

'안받침' 또한 20세기 자료에서 확인된다. 해방 직후에도 나타나고 1950년대 후반 남에서 발행된 신문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후부터는 '안받침'이 '뒷받침'과 같은 의미의 북한어로 불리며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어휘로 전락한 듯 보인다.

▣ 이것(=불하물품[7])의 흘러나리는데 제하여 물가앙등(物價昂騰)의 **안밧침이** 된 일이 없었을가?〈조선경제 당면과제, 《조선일보》 2면, 1947. 1. 5.〉

▣ 물자의 **안받침이** 없는 통화증발이 결국은 그 자체의 화폐 가치를 저락시킴으로써 안정 세력인 미화(美貨)와 금값을 더욱 확정시킨 것이며….〈정세 따라 변동되는 금 값, 《조선일보》 2면, 1954. 6. 30.〉

▣ 사실 자유는 자유라는 것만으로 사회적인 그 뜻을 가지지 못한다. 평등이란 것이 **안받침을** 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니….〈구미 편력 수감(歐美遍歷隨感)—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조선일보》 2면, 1959. 8. 9.〉

무대에서는 조연(助演) 배우의 뒷받침이 중요하다. 주역(主役)을 도와 극의 전개를 원활하게 하며 주어진 시간 안에 작품에 몰입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한자 '人'의 풀이처럼 우리의 삶과 생활도 누군가의 뒷받침과 안받침 덕에 채워지곤 한

6) 인푸레: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한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일본식 표현 '인후레(インフレ)'에서 비롯된 표기.
7) 불하물품(拂下物品): 주한 미군이 잉여 재산을 처리하는 요령에 따라 파는 물건.

다.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주어진 일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생각지 못했던 따뜻한 차 한 잔이 손에 쥐어지기도 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많은 일은 이렇게 뒤나 안에서 눈에 띄지 않게 이뤄지곤 한다. '앞받침'이나 '바깥받침'을 사전에서 찾을 수 없는 이유도 이러한 까닭이 아닐까. 밖에 있고 앞으로 나설수록 '안사람'의 뒷받침과 '후배(後輩)'의 안받침은 잊히기 쉽다. 잊지 않고 마음 편히 누군가에게 기대려면, 나 또한 상대에게 좋은 '받침'이 돼야 한다는 가르침이 사람 인(人) 자의 진짜 의미가 아닐까 싶다.





이형주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2019년에 사업회에 입사해 현재 편찬3부에서 선임편찬원으로 일하고 있다.

들국화

글 이윤경 겨레말큰사전 책임편찬원



꽃은 우리에게 봄이나 가을이 왔음을 실감하게 한다. 이른 봄에 들이나 산에서 잎보다 먼저 노란 꽃을 피우는 '산수유나무'의 꽃과 '개나리꽃', 분홍색 꽃을 피우는 '진달래꽃'은 우리를 싱그러운 봄의 세계로 안내한다.

가을이 왔음은 특히 '국화과(菊花科)'에 속하는 꽃들이 알려 준다. 길가에서 흰색이나 분홍색, 자주색의 꽃을 피우는 '코스모스', 늦여름에 줄기나 가지 끝에 노란색의 크고 둥근 꽃을 피우는 '해바라기', 옅은 자주색의 꽃을 피우는 '쑥부쟁이', 붉은색이나 흰색의 꽃을 피우는 '구절초'가 우리로 하여금 오곡백과 무르익는 가을의 정취를 느끼게 한다.

'들국화'는 주로 가을에 산과 들에 피는 국화과의 꽃들을 두루 이르는 말로 쓰인다. 백과사전에는 학명이 있는 종(種)으로 실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야생의 들국화는 주로 '산국(山菊)'이나 '감국(甘菊)'의 종으로 지칭되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과 《조선말대사전》[1] 등 기존 국어사전에 실려 있는 '들국화'의 뜻풀이는 아래와 같다.

사전	뜻풀이
《표준국어대사전》	국화과의 여러해살이풀. (중략) 9~10월에 노란 꽃이 두상(頭狀) 화서로 핀다. 꽃은 약용하거나 식용하고 애순은 식용한다. 산과 들에 나는데 한국, 일본 등지에 분포한다. =산국.[2]
《조선말대사전》	국화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의 한가지. (중략) 가을에 줄기와 가지끝에 노란색의 꽃들이 머리모양꽃차례를 이루어 고른꽃차례로 배치된다. 열매는 여윈열매이다. 중부이북의 산지들판에서 자라거나 심어기른다. 꽃은 약재로 쓰며 식물체는 관상용식물로 쓴다.
《금성 국어대사전》	산과 들에 저절로 나서 자라는 야생종(野生種)의 국화. 감국(甘菊).
《우리말큰사전》	집에서 기르거나 개량한 국화에 대하여 산이나 들에 절로 난 국화들을 일컫는 말. 감국, 쑥부쟁이, 산국, 해국, 실망초 따위. 〈한〉야국01.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국화과에 속한 여러해살이풀. (중략) 9~10월에 노란색 꽃이 핀다. 어린잎은 식용하며 꽃은 약재로 쓴다. 우리나라, 중국, 일본에 분포한다. 학명은 *Chrysanthemum boreale*이다.
《연세 현대 한국어사전》	산이나 들에 저절로 나는 연한 보랏빛의 작은 국화.



↑ '산국'의 세밀화



↑ '감국'의 세밀화



↑ '감국(약재)'의 세밀화

'들국화'는 《표준국어대사전》과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서는 '산국'과 동의어로, 《조선말대사전》과 《금성 국어대사전》에서 '감국'과 동의어로 되어 있다.[3] 《우리말큰사전》과 《연세 현대 한국어사전》에서는 '산국'과 '감국'을 모두 아우르는 말로 뜻풀이되어 있다.

산국은 주로 산지에서 자라며 가을에 작고 노란 꽃이 모여 피는 풀이다. 어린순과 꽃은 약으로 쓰거나 나물로 먹을 수 있다. 산국의 키는 감국보다 크지만, 꽃의 크기는 감국보다 1.5배 정도 작으며 산국의 꽃이 감국보다 많이 달린다.

감국은 길가나 산기슭에서 자라며 가을에 노란 꽃이 가지 끝에 피는 풀이다. 산국보다 꽃이 크고 잎이 반짝인다. 감국의 꽃은 말려서 술 등을 만드는 데 넣거나 약으로 쓴다. 감국은 국화꽃 향기가 강하고 산국보다 쓴맛이 적으며 한자어 '甘菊'에서 알 수 있듯이 맛이 달다. 그래서 감국의 꽃으로 술을 담가 국화주를 만들거나 차를 끓여 국화차를 마신다.

국화 가운데 꽃을 말려서 약재로 쓰는 것은 주로 감국이다. 아래 《조선말대사전》의 '감국' 풀이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북측의 《조선말대사전》에서는 '감국'을 '단국화(-菊花)'로 다듬었는데, '단국화(-菊花)'는 남에서 쓰이지 않는 말이다.

올림말	《조선말대사전》
감국 **(甘菊)**	① ⇒단국화. ② 고려약에서, 《단국화의 꽃을 말린것》을 약재로 이르는 말. 열을 내리게 하고 눈을 밝게 하며 독을 푼다. 또한 부스럼, 뼈마디아픔, 고혈압병 등에 쓴다.
단국화 **(-菊花)**	길가나 산기슭에 절로 나는 국화의 한가지. (중략) 가을에 향기로운 노란 꽃이 핀다. 꽃은 향료, 술 등을 만드는데 쓰며 꽃은 그늘에 말리여 아픔멎이약, 진정약, 염증약으로 쓴다.

산국과 감국은 우리가 길가에서 흔히 만나 볼 수 있는 야생의 국화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국화과의 꽃들은 보라색, 남색, 흰색, 노란색 등 형

1) 《조선말대사전》의 뜻풀이는 2017년에 발행된 개정판 중심으로 했다.
2)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산국(=들국화)'의 학명은 '*Chrysanthemum boreale*'이다.
3) 《조선대백과사전》에서 '들국화'의 학명은 '*Chrysanthemum indicum*'이다. 이는 《표준국어대사전》의 '감국' 학명과 같은 것이다.

형색색으로 피며 가을에 산과 들을 수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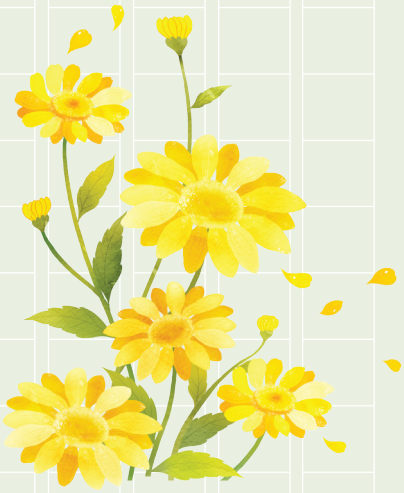
남북의 언중은 들에서 피는 산국과 감국, 쑥부쟁이 등을 구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모두 아울러 '들국화'로 부르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의 용례를 보면 산이나 들에서 저절로 자라는 국화를 '들국화'라고 통칭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들국화는 개량하여 심어 가꾸는 국화에 상대하여 들에서 저절로 나서 자라는 풀을 이르는 말로도 쓰이고 있다. 가을에 피는 야생 국화를 우리는 들국화로 부르고 있다.

남측 용례

- 가을이라 온 산천에 **들국화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습니다.《김수용: 소설 격암유록》
- 길섶에는 **들국화가** 지천으로 피고 풀 단풍이 곱다.《한무숙: 만남》
- 눈바람 속에서 제일 먼저 피는 진홍빛 동백꽃에서부터 찬바람이 비쳐서야 꽃망울을 여는 보랏빛 **들국화까지** 꽃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조정래: 태백산맥》
- 연보랏빛 쑥부쟁이와 노란 감국꽃은 가을 들판과 산자락에 피어나 **들국화로** 불리며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는가.《윤후명: 꽃》

북측 용례

- 화단이나 공원에서 사람들이 가꾸어서 피는 꽃이 아니라 깊은 산 이름없는 풀밭 속에 저혼자 나서 저혼자 피며 첫눈이 내릴 때까지 깊은 산속에서 일하는 광부나 농민들에게 기쁨을 주는 소박하고 수수한 **들국화가** 얼마나 아름다운 꽃인가.《새 발파소리》(북)
- 산기슭 논머리에 소담히 피여난 **들국화**송이들이 나른해 늘어졌고 밤나무가지마다 다닥다닥 매달린 밤송아리들에선 때아닌 밤알이 맥없이 떨어져내렸다.《왁새골의 주인들》(북)



지금까지 여러 사전의 뜻풀이와 용례에서 '들국화', '산국'과 '감국'의 차이를 확인했다. 앞으로 《겨레말큰사전》과 같이 남북의 말을 아우르는 사전을 편찬할 때 이와 같은 차이를 잘 드러낼 수 있어야 남북 교류 시대나 통일 시대에 남과 북

의 언중이 언어생활에서 서로 다른 점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서로 오해 없이 소통하는 길이 열릴 것이다.

《겨레말큰사전》에서는 이처럼 기존 사전과 용례를 통해 남북 간의 의미와 쓰임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올릴 가치가 있으면 사전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위에서 다룬 내용을 바탕으로 《겨레말큰사전》에 실릴 '들국화'와 '감국', '산국'의 풀이를 아래와 같이 깁고 더해봤다.[4]

올림말	뜻풀이
들국화 (-菊花)	① 가을에 산과 들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풀. 줄기는 곧게 서고 흰색의 잔털이 나 있다. 잎은 어긋맞게 나며 달걀 모양인데 보통 깃 모양으로 갈라진다. 9~10월에 작고 노란 꽃이 모여 핀다. 어린순과 꽃은 먹을 수 있고 꽃은 약재로 쓰기도 한다. [같은말] 산국(山菊). ② =감국. ③ 산이나 들에서 저절로 자라는 국화. 관상용으로 심어 가꾸거나 개량한 국화를 상대하여 이르는 말로 감국, 산국, 쑥부쟁이 등이 있다.
감국 (甘菊)	① 가을에 노란 꽃이 가지 끝에 피며 산국보다 꽃이 크고 잎이 반짝이는 풀. 잎은 어긋맞게 나고 깃 모양으로 갈라진다. 10~11월에 꽃이 가지 끝에 피는데 꽃은 술을 담그는 데 쓰거나 말려서 약으로 쓴다. 길가나 산기슭에서 자란다. [같은말] 들국화②. ② 《약학》 전통의학에서, 〈감국①〉의 꽃을 말린 것을 약재로 이르는 말. 열을 내리고 눈을 밝게 하며 독을 푼다. 종기, 관절통, 고혈압 등에 쓴다.
산국 (山菊)	=들국화①.



이윤경

성심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으며,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편찬실 편찬원을 역임했다. 현재 사업회 편찬3부 책임편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4) 아래 뜻풀이는 글쓴이의 견해이다. 사업회의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밝혀 둔다.

新 전원 일기

글 신미나 시인



아, 오, 아, 오. 소 똥구멍은 의태어

예전에는 집마다 한두 마리씩 소를 키웠지만, 요즘 소를 키우는 집은 드물다. 우리집 외양간도 헛간이 된 지 오래되었다. 오래전에 "소는 누가 키우지?"라는 말이 예능에서 유행한 적이 있다. 이제 정말 소는 누가 키우지?

지금은 서울에서 15년 넘게 살고 있지만, 나는 말 그대로 '친환경적인' 벽촌에서 태어났다. 길가에 매 놓은 염소가 콩자반처럼 까맣고 동글동글한 똥을 싸거나, 비 오는 날 개구리 울음주머니가 풍선껌처럼 부풀었다 꺼지는 걸 보며 자랐다. 도시에서 자란 이들에게 이런 경험은 얼마간 새로운 일일지 모르겠으나, 내게는 그저 예사로운 풍경이었다. 시골에서 보낸 유년기는 대개 따분했다.

나는 마루에 배를 깔고 엎드려 숙제하다가, 하릴없이 소를 관찰하곤 했다. 어미 소는 되새김질할 때면 눈을 지그시 내리깔았다. 끝이 살짝 말린 속눈썹이 금발 인형의 속눈썹처럼 길고 예뻤다. 주둥이 가장자리에 침 거품이 고여서 더럽다고 생각하면서도, 소가 여물 씹는 소리는 듣기 편했다. 왕겨를 넣은 베개를 자근자근 밟는 소리처럼 들렸다.

어미 소는 아버지의 긍지였다. 아버지는 입버릇처럼 "주인이 게으른지, 부지런한지는 소 궁둥이를 보면 안다."라고 하셨다. 짚을 자주 갈아주지 않으면 소 궁둥이에 '똥 떡'이 굳기 때문이다. 우리 집 어미 소의 엉덩이는 말끔했다.

날이 추워지면 황토색이었던 소털이 갈색으로 짙어지고, 털도 촘촘하게 났다. 아버지는 톱니 모양의 소 빗을 쥐고 빗질했다. 톱니 결대로 소의 몸통에 털 이랑이 그어졌다.

"여, 봐라."

아버지가 흐뭇한 표정으로 동그랗게 뭉친 털 공을 내게 보여주었다. 빗질할 때 어미 소는 시원한지 눈을 가느스름하게 뜨고, 이따금 댕기 머리 같은 꼬리를 툭툭 쳤다. 소에게 꼬리는 또 하나의 팔이었다. 코끼리의 코처럼.

여러 동물이 똥을 누는 모습을 보았지만, 그중에서도 소가 똥 누는 모습은 야성적이고 시원한 맛이 있었다. 입을 '아' 하고 크게 벌리듯 똥구멍이 '아' 하고 벌어지면, 호떡만 한 똥이 철벅, 하고 떨어졌다. 똥이 다 나오면 크게 벌어졌던 똥구멍이 순식간에 대추알만큼 쪼그라들었다. 소의 똥구멍은 또 하나의 입(口)이자, 언어였다. 소가 똥을 누면 나는 입을 아, 하고 크게 벌렸다가 오, 하고 오므리면서 입 모양으로 박자를 맞췄다. 아. 오. 아. 오.

“쭸저, 쭸저”, 아버지가 소를 부르는 단어

어미 소가 첫배로 낳았던 송아지는 틈만 나면 집을 나갔다. 송아지는 막대기 몇 개로 허술하게 막은 울타리를 허들 선수처럼 가뿐히 뛰어넘었다. 부모님은 일하러 나가면서 송아지가 못 나가게 대문 단속하라고 단단히 일러두셨다.

만화 보느라 정신이 팔린 사이, 밖에서 어미 소가 크게 우는 소리가 났다. 외양간으로 가보니 송아지가 없었다. 정신이 퍼뜩 들었다. 아직 코뚜레도 끼우지 않은 송아지였다. 찾았다 한들 고삐가 없으니 송아지를 몰아서 집으로 데려올 일도 막막했다.

아버지의 불호령이 떨어질 게 뻔했다. 동생과 나는 집마다 기웃거리며 송아지를 찾아다녔다. 한참을 찾다가 동생이 한수네 집 외양간을 가리켰다. 우리집 송아지가 거기 있었다.

“아이구, 송아지가 지 에미도 못 알아보고…. 니들이 송아지를 어떻게 데려가?”

한수 엄마도 뾰족한 수가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일단 송아지가 무사한 걸 확인하고 동생과 집으로 갔다. 아버지가 집에 와 계셨다. 마을회관에서 잔치라도 했는지, 아버지한테서 막걸리 냄새가 풍겼다. 예상과 달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꾸지람도 하지 않으시고, 외양간 기둥에 묶어둔 목줄을 풀었다.

아버지가 고삐를 잡아당기자 어미 소가 눈을 까뒤집고 콧김을 쉭쉭 대며 흥분했다. 아버지가 “쭸저.” “쭸저.” 하면서 소를 달랬다. 인간의 말이 아니라, 꼭 소의 말로 어르는 것 같았다. 아버지가 고삐를 쥐고 대문 밖으로 어미 소를 끌었다. 동네 사람들이 무슨 재미난 구경거리라도 보는 듯이 소를 끌고 가는 아버지의 행차를 구경했다.

아버지가 좌우로 갈지자(갈之字)를 그리며 비틀거렸다. 취한 아버지가 부끄럽기도 했지만, 그보다 아버지가 흥분한 어미 소의 뒷발에 챌까 봐 걱정스러웠다. 아버지는 “흘흘”, 웃으면서 목줄을 두어 번 감아쥐고 고삐를 당겼다. 대문 앞에서 버티던 어미 소가 마지못해 아버지를 따라갔다. 꼭 이중섭의 그림에서 소달구지를 끌고 가는 사내처럼 아버지의 얼굴은 태평했다.



한수네 집에 다다랐을 때 송아지를 보자마자 어미 소가 “우워.” 하고 높은 소리로 울었다. 송아지가 제 어미를 보고도 움직이지 않았다. 어미 소가 송아지를 나무라듯이 다시 “워어.” 하고 소리를 냈다. 아버지가 송아지의 궁둥이를 살짝 쳤다. 그제야 송아지가 제 어미를 알아보고 어미 소 옆으로 찰싹 붙었다. 옆에서 지켜보던 한수 엄마가 말했다.

“그려, 억지로 끈다고 될 일이 아녀.”

아버지가 고삐를 쥐고 앞서 걸었다. 어미 소 옆에 송아지가 따라붙었고, 나랑 동생이 뒤따라 걸었다. 걱정거리가 쉽게 풀리자, 슬며시 웃음이 났다. 담장 너머로 해바라기처럼

기웃거리며 이 상황을 지켜보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사라졌다. 어느새 사위가 어두워져 귤색 불빛이 하나, 둘 켜졌다.

소는 온몸이 언어이다

날이 추워지면 아버지는 솥에 쇠죽을 끓였다. 여물통에 사료와 여물을 한데 넣고 쇠 주걱으로 석석 비비면 구수한 짚 냄새가 풍겼다. 어미 소는 입맛이 까다로웠다. 마른 짚을 잘 먹지 않았고, 아버지가 끓여주는 쇠죽만 먹었는데, 그마저 다 먹지 못하고 남겼다. 어쩌다 아버지가 집을 비울 일이 생기면, 아버지는 소 끼니 걱정부터 했다.

"어라? 이게 왜 쑥 빠진다."

아버지 손에 소뿔이 들려 있었다. 뿔이 빠진 어미 소의 뿔에 피가 번졌다. 어미 소의 출산이 임박해서 갑자기 생긴 일이라, 아버지는 터부라도 잘못 건드린 듯 혀를 찼다.

며칠 뒤 어미 소의 출산을 도우러 인공수정사인 진태 아저씨가 왔다. 한바탕 눈이라도 퍼부을 듯 으슬으슬 춥고 흐린 날이었다. 아버지는 짚을 푹신하게 깔고 외양간에 난로를 켜두었다.

진통이 시작되는지 소가 고통스럽게 울었다. 소의 콧구멍에서 흰 김이 풍풍 솟았다. 소가 꼬리를 높게 들고 외양간을 왔다 갔다 했다. 한참을 안절부절못하더니 옆으로 앉아 다리를 쭉 뻗었다.

"애들은 이런 거 보는 거 아녀. 얼른 방에 들어가."

엄마가 주의를 줬지만, 나랑 동생은 호기심이 생겨 문을 빼꼼 열고 지켜봤다. 소가 신음하며 힘주는 소리가 들렸다. 덩달아 나까지 손에서 땀이 나는 것 같았고, 엄지발가락에 절로 힘이 들어갔다.

"아이구, 피가 비치네! 새끼가 거꾸로 섰나. 소가 힘 줄 때 같이 땡겨야는디, 하이고. 어째 소가 배에 힘을 안 줘."

진태 아저씨가 걱정스레 말했다. 예민한 소를 자극할까 봐, 어른들은 목소리를 낮췄다. 어미 소가 지쳤는지 소리도 못 내고 괴로워했다.

"지금 안 꺼내면 질식하는디. 잡아 빼야 해유. 지금 안돼유. 억지로 당기면 안된다니깨. 내가 당기라고 할 때 같이 당겨유."

어미 소가 무사히 새끼를 낳기를 간절히 바랐다. 얼마나 지났을까. 송아지가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외양간으로 가보았다.

양수에 흠뻑 젖은 송아지가 무릎을 꿇고 있었다. 어미 소가 연신 송아지를 핥았다. 십 분

쯤 지났을까. 송아지가 비틀거리며 일어서려 했다. 인간처럼 목을 가누고, 몸을 뒤집는 과정 없이 바로 일어서다니. 신기하고 놀라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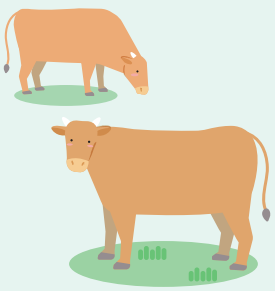
"히유, 됐네. 됐어."

진태 아저씨가 손을 털며 초유를 먹여야 송아지가 건강하게 자란다고 말했다. 어미 소는 쉼 없이 송아지를 핥았다. 어미 소의 혀 자국을 따라 송아지의 밝은 황토색 털이 보송하게 말라갔다.

송아지가 어미 소의 젖을 물려고 하자, 어미 소가 뒷발길질을 했다. 젖이 불어 아픈지, 송아지를 자꾸만 밀쳐 냈다. 아버지가 어미 소를 묶고 송아지에게 젖을 물렸다. 송아지는 힘이 약해서 젖을 잘 빨지 못했다.

몇 시간 뒤 소가 후산을 했다. 흰 막에 싸인 태반이 밧줄처럼 길게 매달려 있었다. 징그럽고 무서웠다. 아버지가 태반을 가져다 송아지 몸에 문질러 냄새를 묻혔다. 아마도 어미 소가 송아지에게 순순히 젖을 내주도록 체취를 묻히는 모양이었다. 아버지는 태반을 그냥 두면 소가 먹는다고, 태울 거라고 하셨다.

며칠이 지나도 송아지가 힘 있게 젖을 빨지 못하자, 아버지가 젖병을 사 왔다. 아버지는 젖먹이 돌보듯 송아지에게 우유를 먹였다. 송아지는 자꾸만 아버지 등에 올라타려고 했다. 허리를 다칠 뻔한 아버지는 송아지가 더 크기 전에 팔아야겠다고 말했다.



송아지가 팔려 가던 날, 어미 소가 목이 쉬도록 울었다. 소는 의미가 아니라 감정으로 말했다. 소는 온몸이 언어였다. 몸이 울림통이 되어 소리의 높낮이로만 말했다. 어미 소가 흘린 눈물 자국이 밤색으로 젖어 들었다. 소의 눈동자를 보면 알게 된다. 소의 눈은 진실만을 보여준다는 것을. 소는 인간처럼 눈물을 무기로 이용하지 않는다. 소는 언어 없이 생명의 비애를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나는 소의 눈동자를 똑바로 보기 미안했다.

송아지가 팔려 가고 난 뒤에도 어미 소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낮이고 밤이고 사흘 넘게 울었다. 머리에 겨우 홍화씨만 한 뿔이 돋았던 송아지. 어미 소는 송아지가 얼마나 보고 싶을까. 송아지도 어미 소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뒷발로 버티던 게 기억났다. 그 모습이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여공이 된 큰언니와 겹쳤다. 언니도 그맘때 서울로 가는 직행버스를 탔다. 입동 무렵이었다.



신미나

시인. 2007년 경향신문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했다. 시집 『싱고,라고 불렀다』, 『당신은 나의 높이를 가지세요』 등을 냈으며, 시툰집 『안녕, 해태』(전 3권), 『詩누이』, 『서릿길을 셔벗셔벗』 등을 쓰고 그렸다.

평화와 통일을 꿈꾸는 사람들

글 **신경훈** 피스플레이 부대표





← 피스플레이에서 발행한
평화통일교육 교구재 안내서

평화와 통일을 향한 열정, 피스플레이의 시작

피스플레이는 민간 차원의 평화와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평화통일교육을 전개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이다. 2012년 11월, 피스플레이는 통일부의 국립통일교육원이 양성한 청년 통일교육 전문 강사들을 중심으로 대안적인 통일교육 및 문화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 설립됐다. '평화와 통일'을 향한 열정을 가진 몇몇 청년들이 함께했다.

처음에는 '통일드림'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다. 2021년에는 피스플레이로 단체명을 변경했으며, 올해 4월에는 다양한 평화통일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경기지부를 설립했다. 기존 안보교육 및 수동적 통일교육의 한계를 벗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능동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당시 정부 차원의 통일교육에서 다루지 않았던 '평화교육', '갈등해결교육', '민주시민교육' 등의 요소를 융합해 통일 동아리 활동에 활용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전문성과 젊음의 에너지를 바탕으로 전국 규모의 평화통일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평화의식 확산을 위해 평화통일 시대를 준비하려는 열정을 가지고 전 세대가 어우러질 수 있는 다채로운 평화통일 문화사업과 실천적 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을 병행하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매년 연구 사업 및 평화통일교육 교구재를 개발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 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업을 통해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피스플레이의 장점은 청년 평화통일 강사들이 많다는 것이다. 젊은 세대에서 통일의식이 사라져 가는 것은 늘 안타깝지만 피스플레이에 소속된 강사들에게서 희망을 보기도 한다. 피스플레이의 또 다른 특징은 북한이탈주민 강사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강의의 앞부분은 북한이탈주민 강사가 북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뒤이어 남녘의 청년 강사가 평화와 통일을 주제로 강의한다. 강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매달 북한, 통일 관련 도서와 평화통일교육 관련 논문을 읽고 토론하는 시간도 갖고 있다.

친근한 평화통일교육 방법: 교구재를 활용한 참여형 평화통일교육



↑ 2022년 9월, 광화문 통일문화축제-평화그림 그리기



↑ 임진각 평화로 페스티벌 참석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통일, 북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어려워할 때가 많다. 북한, 혹은 통일 논의 자체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특히 MZ 세대들은 분단 현실이나 통일을 자신과 관련 없는 문제로 여기기 쉬워 통일의식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교육 중에 조금이라도 지루하면 핸드폰을 보거나 온라인 교육의 경우 화면을 꺼두거나 강사의 교육에 반응이 없을 때도 있다.

현재의 초·중·고등 교육과정에 의하면 '학교 수업에서의 통일 논의'는 통일의 필요성을 가르쳐 통일의지를 높이는 것, 북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 북한이탈주민의 삶을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자세를 갖도록 하는 것이라 한다. 그동안의 통일 수업은 학생들의 삶과 거리를 둔 채 추상적이거나 거대담론에 머물거나 소모적인 논쟁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학교 수업에서 통일 논의를 어떻게 하면 실용적이고 생산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 학생과 교사 모두가 한반도의 분단, 북한, 평화, 통일 문제 등을 즐겁게 배울 수 없을까? 이런 고민 끝에 피스플레이에서는 여러 통일교육 단체와 차별화된 '친근한 통일교육'을 꿈꾸게 됐다. 가장 먼저 퍼즐, 스티커, 그림, 카드, 주사위, 모자이크 등을 활용해서 '민주시민, 북한, 통일, 역사, 전래놀이'를 주제로 하는 40종이 넘는 교구재를 개발했다. 초·중·고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세대별 교구재를 개발하여 눈높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 강의할 때마다 학습자들이 대단한 집중력을 가지고 교육에 참여한다. 강의 후에 평화와 통일을 바라보는 학습자들의 인식이 변화되는 것을 느낄 때마다 큰 보람을 느낀다. 피스플레이의 통일 강의 후 학교에 통일동아리가 꾸려진 사례도 있었다. 앞으로 피스플레이는 장애인과 외국인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구재 개발에도 힘쓸 것이다.

새롭게 시작된 민주시민교육 관점의 평화통일교육

통일교육지원법 제3조 2항 통일교육 기본사항에 근거하여 국립통일교육원에서 발간한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1]을 살펴보면 평화통일교육의 중점방향 15가지를 제시한다. 해당 지침서에서 제시하고



↑ 학교 교사 및 통일교육 단체 강사들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관점의 평화통일교육〉 워크숍 및 교구재 전수 교육

있는 평화·통일교육의 5대 목표는 ①평화·통일의 실현 의지 함양 ②건전한 안보의식 제고 ③균형 있는 북한관 확립 ④평화의식 함양 ⑤민주시민의식 고양이다. 피스플레이는 특별히 네 번째 평화의식 함양과 다섯 번째 목표인 민주시민의식 고양에 관심을 가지고 민주시민연구팀을 조직해 평화통일교육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까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학교 교사 및 통일교육 단체의 강사들에게 주말마다 민주시민교육 관점의 평화통일교육 교구재를 활용한 강사 워크숍 및 전수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2022년부터 교육부의 민주시민교육과가 인성체육예술교육과로 통합되면서 평화통일교육을 포함하는 민주시민교육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평화통일교육이 가장 활발했던 경기도교육청의 경우도 미래인성교육과로 그 이름을 바꿨다. 모쪼록 이제 조금씩 씨앗에서 움트기 시작한 평화통일교육의 싹이 여기에서 성장을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본다.

1) 1992년부터 거의 매년 『통일교육 지침서』가 발간됐는데, 2020년 개정판부터는 그 명칭을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으로 이름을 바꾸어 발간하고 있다.

과정으로서의 통일과 평화 감수성

지금까지 통일교육에서는 '필요성'과 '당위성', '경제적 효과' 등으로 통일을 해야 한다는 논의만 반복했다. 그러나 '통일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와 같은 프레임은 소모적인 논쟁으로만 그칠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의 분단, 북한, 평화, 통일 등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의 삶에서 필연적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는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특히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문제는 미래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그 의미를 따져보고 직접 판단해 봐야 할 부분이다.

간혹, 학생들이 평화와 통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물어보면 당황스럽기도 하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묻는 학생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다. 그 이유는 이 학생들이 적어도 평화와 통일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해서 질문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통일에 찬성하거나 반대한다고 성급히 사회의식의 부재나 민족의식이 없는 것으로 치부하는데 우리는 이러한 결과주의적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평화통일교육은 교육의 과정 자체가 평화적이어야 함을 잊지 말고 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한다. 비록 학생들이 통일을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을 개진한다고 할지라도 정답을 조사하기 위한 '교육적 폭력'이 자행돼서는 안 된다.

학교에서 통일교육에 대한 강사들의 생각은 '평화교

육이 먼저다'와 '통일교육이 먼저다'로 나뉜다. 평화와 통일에 대한 생각과 가치관, 평화통일교육의 방향성은 통일교육을 하는 단체 간에, 강사들 간에 이견이 많다. 이러한 의견 차이를 메우기 위해 제시된 개념이 '과정으로서의 통일'이다. '과정으로서의 통일'은 남과 북의 공존을 인정하고 공존의 변화 효과를 통해 '사실상의 통일' 상태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는 '결과로서의 통일' 개념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점진적인 통일'의 가능성에 주목한다. 학생들 눈높이에 맞춰 '통일'보다는 '평화공존'을 앞세워야 한다고 본다. 학생들이 갈등의 원인이 된 분단구조를 이해하고 혐오와 차별에서 공존과 협력의 방안을 스스로 찾아가도록 하는 것이 평화교육이다. 즉, 평화교육은 '다름'을 인정하고 '같음'을 찾아가는 교육과정이다.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평화가 곧 길이다' 라는 말이 우리에게 커다란 의미를 준다. 앞으로의 평화통일교육은 과정으로서의 통일, 특히 평화 감수성 함양에 주목해야 한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자세, 감수성을 깨우고 자극하는 평화통일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입으로 이야기하는 평화가 아니라 마음속에 담겨 있는 평화 감수성이 삶의 실천 과정으로 발현돼야 한다. 그렇게 평화를 강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남과 북이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평화와 통일, 서로에 대한 존중에서 출발

남북이 분단된 지 8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그러는 사이 우리는 서로의 공통점보다 차이에 주목하는 게 더 자연스러워졌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 가까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잘 알거나 알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쉽게 선입견과 편견을 갖는다. 일상에서 평화와 통일을 쉽게 경험하는 방법은 '먼저



↑ 2022년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 중·고등학생 평화공감교육



↑ 2022년 9월, 광화문 통일문화축제에서 통일된 한반도를 그리는 초등학생

온 통일'로 불리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 관심, 배려가 아닌가 싶다. 이념으로 갈라진 남한 사회의 통합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과의 사회문화적 통합이야말로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의 문제를 잘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통일 자체보다는 통일 이후가, 제도적 통일보다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회문화적 통일이 더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통일교육의 주요 주제도 '제도'가 아닌 '사람' 중심이 됐으면 한다.

평화로운 통일은 우리 미래의 주인공인 아이들과 젊은 세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미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은 대한민국 국민이 함께 만들어가야 하며, 분단체제를 평화체제로 만드는 것은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한 시대적 과제이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줘야 할 선물은 바로 이러한 상상을 현실로 이루어 내는 것이다. 작은 씨앗이 땅에 떨어져 싹이 트고 자라나 큰 나무가 되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수고롭게 뿌린 평화의 씨앗들은 점점 자라나서 새로운 한반도의 역사를 창조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앞으로 훌륭한 평화통일교육 강사들이 더 많이 배출되기를 바라며, 백두산, 금강산, 개성에서 남북 청년들이 함께하는 평화통일교육 강의를 꿈꿔본다.



↑ 피스플레이 청년 통일강사들의 평화 공감 스토리, 『통일을 꿈꾸는 사람들(2019)』 출판



신경훈

광주기독간호대학 간호학과를 졸업했고 총신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한국수어교원전공 석사과정 중이다. 현재 강동구보건소 간호사로 일하고 있으며 평화통일교육단체 피스플레이 부대표, 통일과 간호연구회 대표이면서 최근에는 북한이탈주민 간호학생과 북한이탈주민 농인 지원단체인 피스메이커를 설립해 대표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남북 의료수어를 비교하는 『남북의료손말수어 용어집』이 있다.

겨레의 말글살이에 대한 충실함으로 가득했던 그때, 우리의 얼굴들

글·사진 **변영수** 겨레말큰사전 편찬부장



사진을 보면, 손에 잡힐 듯한
풍경들이 쏟아져 나온다.
아무리 먼 시간이라도 그 옛날이
사진을 읽는 지금 이 순간으로
투사되면서 새로운 이름과
살과 뼈를 산출한다.
그런 의미에서 사진이란
과거의 집적이 아니라 미래를
만드는 의지가 아닐까.
내게는 2015년 12월, 중국 다롄
에서 열린 제25차 공동회의를
스케치한 사진들이 그렇다.
가장 선명했고 뜨거웠으며
오로지 겨레의 말글살이에 대한
충실함으로 가득했던
그때, 우리의 얼굴들!

2015년 12월 6일, 우리는 제25차 공동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 다롄에 도착했다. 여장을 풀었지만, 어깨에 뭉친 근육들은 좀처럼 풀어지지 않았다. 2015년 10월, 금강산에서 제24차 회의를 마친 후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간에 다시 열린 회의였고, 늘상 반복되는 회의 모습처럼 일주일에 가까운 시간 동안 얼굴을 맞대고 옥신각신해야 하는 상황들이 앞서 그려졌기 때문이기도 했다.

회의장은, 언제나 팽팽하게 잡아당긴 활시위처럼 휘어져 있었다. 남측 사업회나 북측 편찬위원 모두 자신에게 귀속된 신념에 사활을 걸었으니 그 분위기는 늘 열기로 뜨거웠다. 그 긴장감과 열기만큼 겨레말 최초의 합의 원고라는 결과물에는 성큼 가까워졌던 시간이었다고 자부한다.



↑ 제25차 공동회의(중국 다롄)

하지만 7년이 지난 지금, 공동회의는 뜻밖에도 답보 상태에 있다. 말글살이란 실로 생활과 직결된, 살아 있는 공동체의 '얼'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수밖에 없다. 적어도 자주 만나서 생활을 나누고 태도와 입장을 교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 『한국지명유래집–북한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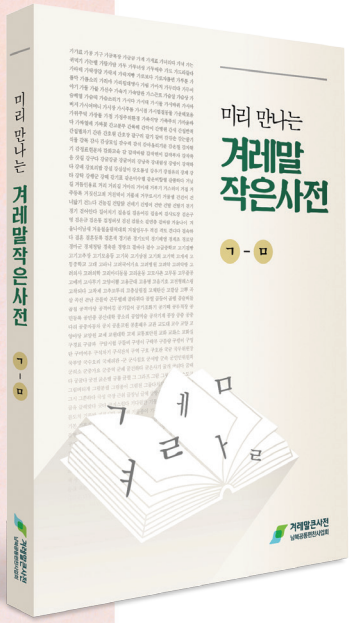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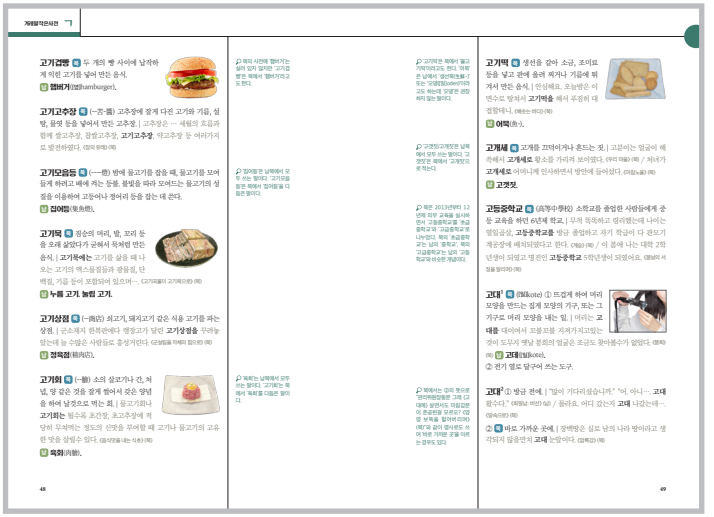
↑ 북측 협의용 《겨레말큰사전》 가제본에 수록된 '둔지'

이러한 시점에서 제25차 공동회의를 돌이켜 보면, 그 주된 성과 중 하나는 북한 지명을 대상으로 지명 요소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이 아닐까 한다. 북한의 지명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연속 발행한 『한국지명유래집–북한 편』에서도 다루고 있으나, 이 자료집에서는 북한의 대표적인 행정 지명과 자연 지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세분화된 지명까지는 포괄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공동회의에서는 좀 더 세부적인 지명을 대상으로 해당 지명에 쓰인 지명 요소를 논의하여 기존 사전에는 없는 어휘들을 새어휘로 발굴했다. 예를 들어, 지명 '민둔지(자강, 평남, 함북)', '흙굿둔지(평남)', '솔둔지(자강)' 등 이 지명에 공통으로 결합한 지명 요소 '둔지'에 대해 논의했고, 이를 '둔덕'을 의미하는 자강도, 평안남도, 함경북도 지역어로 보아 《겨레말큰사전》에 등재하기로 했다. 물론, 이러한 지명 요소에 대한 논의는 제26차 회의에서 계속할 예정이었다.

비록 7년째 공동회의 재개는 지연되고 있지만 우리 사업회는 통일시대를 대비한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과 아울러, 그동안의 사업 성과를 한데 모아 2021년에 종이사전 형식의 북측 협의용 《겨레말큰사전》 가제본을 제작했고, 올해에는 《미리 만나는 겨레말작은사전》을 발간했다.[1] 특히 《미리 만나는 겨레말작은사전》은 북측의 일상생활 용어와 교과서 용어, 기초 전문용어, 관용구와 속담 등을 수록해 국민들이 남북 언어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편찬했다. 가령, 북측 어휘 '고기겹빵'은 남측의 외래어 '햄버거'를 가리키는 북측 어휘이다. 남측과는 달리 사물의 형태가 그대로 드러나도록 직관적으로 조어했다. 《미리 만나는 겨레말작은사전》에서는 '고기겹빵'을 "두 개의 빵 사이에 납작하게 익힌 고기를 넣어 만든 음식"으로 뜻풀이하고, 뜻풀이 아래에 대응하는 남측 어휘가 '햄버거'라는 정보를 붙여줬다. 해당 삽화와 함께 날개 정보에는 북측에서 '햄버거'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한다는 설명을 함께 제시해 사전에 수록된 내용만으로도 단어의 의미와 남북 언어문화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교하고 섬세하게 다루었다.

1) 사업회에서는 《미리 만나는 겨레말작은사전(ㄱ–ㅁ)》(2022년 발간)을 시작으로 2023년에 두 권을 더 발간할 예정이다.





↑《미리 만나는 겨레말작은사전》 표지와 본문

남과 북이 함께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하는 일은 통일시대를 여는 핵심 사업이다. 단순한 어휘의 통합과 집대성을 넘어 민족문화 공동체의 폭과 깊이를 확장하고 진정한 통일을 준비하는 일이라는 측면에서 사업회는 민족의 역사와 미래를 잇는, '생명줄'이 아닐까 한다. 사업회는 공동회의 재개를 기다리며 《겨레말큰사전》을 남북이 함께 완성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문이 열리고 만나기만 하면 된다.



변영수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건국대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2007년부터 사업회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편찬2부 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김미경

2006년 2월에 입사하여 2023년이면 17년 차가 되는 기획홍보부 김미경 과장. 사업회에서 가장 오래 근속한 직원답게 '화석', '시조새'와 같은 특별한 별명을 가지고 있다. 입사 이후 오랫동안 사업회 홍보, 기록 업무를 맡아왔으며 현재는 직원 교육·연수, 남북 언어문화 통합 연구, 남북 수어 연구, 청소년 평화·통일 교육 등 굵직한 연구 기획 업무를 함께 담당하고 있다.

17년 전과 비교해 사업회가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은?

2015년 제25차 회의 이후로 공동회의 재개가 지연되면서 사업 일정이 공동회의 중심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다른 점이다. 공동회의가 활발하게 열릴 때는 사업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회의 일정에 따라 일하고 움직여야 했지만, 현재는 공동회의 재개를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전자 겨레말큰사전》, 《전문용어 사전》 편찬을 추진하고 있다. 또 편찬사업 성과를 보여주는 대국민 홍보 영역을 더 확장하고 사업회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홍보 분야는 어떤가?

사업회 초기에는 《겨레말큰사전》이라는 이름과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 편찬사업'이라는 사업을 알리는 것 자체가 중요했다.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이 만나 우리말 사전을 만드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보나 자료가 없었던 방송과 언론에서 사업회를 취재해 가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는 대표적인 남북 민간교류 사업으로서 그간의 성과를 더 많은 국민과 나누기 위해 홍보 채널도 홈페이지, 블로그뿐 아니라 유튜브, SNS 등으로 확장했고 플랫폼에 맞는 홍보 콘텐츠를 다양하게 제작하고 있다. 특히 겨레말 지도, 북한말 카드 게임, 『한눈에 들어오는 남북언어』 시리즈, 《미리 만나는 겨레말작은사전》 등 편찬성과를 활용한 결과물들을 유관 기관과 교육청, 학교, 도서관 등에 무상 배포하고 있다.

남북 수어를 연구하며 가장 힘든 점과 보람을 느끼는 점은?

남북 수어 연구를 통해 남녘 수어와 북녘 손말의 차이를 카드뉴스, 유튜브 영상 등의 콘텐츠로 제작해 쉽고 재미있게 알리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장 힘든 일은 손말 자료 수집이다. 수어와 손말을 비교하고 대조해볼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애를 먹고 있다. 그러나 남북의 농인과 청인이 '또 하나의 언어' 수어와 손말에 대해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며 차별 없는 농문화, 언어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



↑ **김미경 과장의 모니터** | 2023 수어와 손말 달력

사업회의 '모든 역사'를 함께했다. 앞으로 기대되는 점은?

사업회는 공동회의 재개를 통해 완간될 《겨레말큰사전》 종이사전을 편찬하는 동시에 《전자 겨레말큰사전》 제작을 준비하고 있다. 금세기 마지막 종이 대사전이 될지도 모르는 《겨레말큰사전》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게 될 《전자 겨레말큰사전》이 완성되는 순간도 함께한다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다. 남북교류도 다시 활발해져서 두 사전을 남북 주민이 함께 보게 되는 날도 기대해 본다.



노명아

2006년에 사업회에 사원으로 입사하여 2023년이면 17년 차가 되는 노명아 경영관리부장. 입사 이후 주로 예산 기획과 편성, 집행, 결산 등의 회계 업무를 맡아 왔으며 현재는 사업회 규정, 인사, 노무, 이사회, 감사 관련 업무와 국회 등 외부 기관과의 협력 업무를 관리하며 경영관리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경영관리 측면에서 17년 전과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은?

사단법인으로 출발한 사업회는 2007년에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제정과 더불어 특수법인으로 전환됐다. 법 제정 당시 최초 7년 연한으로 시작했지만 세 차례 개정을 통해 현재는 2028년까지 사업 연한이 연장됐다. 특수법인이자 공직유관단체로서 사업회는, 초기 민간단체의 성격이 짙었다면 그 이후로는 점차 공직유관단체로서의 성격이 더 강해지고 있다. 사업 성과와 기관 평가, 재정 요소, 조직문화와 인사제도 등에서 남북협력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다. 관련 법규, 규정·지침, 공직윤리에 관한 각종 교육, 윤리경영에 대한 요구 기준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공동회의에서 맡은 일과 기억에 남는 일은?

공동회의가 열리면 참석하는 모든 임직원과 편찬위원들의 해외 출장을 관리해야 한다. 출입국 절차부터 체류 일정 및 현장 관리, 예산 지출, 평가 및 점검 등 짧은 회의 기간 동안 남북 편찬원들이 사전 원고를 원활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회의 안팎의 모든 행정을 맡는다. 2015년 금강산에 갔을 때, 금강산 호텔 안에서 만난 강아지를 보고 "와! 강아지가 너무 귀엽네요!"라고 하니 호텔 종업원(북측 접대원)이 "강아지 아닙니다. 애완견입니다!"라고 말했던 기억이 난다. 또 공동회의 일정 끝에 금강산 만물상 구역에 오른 적이 있는데 북측 선생님들이 쉬운 길이라는 듯 정장 구두를 신고도 가뿐히 오르던 모습도 떠오른다.

가장 힘든 순간과 뿌듯한 순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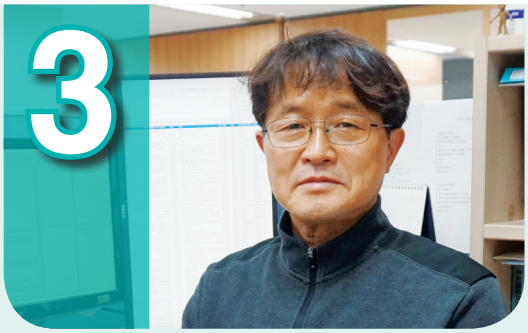
회계의 경우 연차가 쌓일수록 수월해지는 업무인 데 반해 그 밖의 경영관리 업무들은 관련 법규와 규정·지침도 계속 바뀌고 사업회에서 직접 대응해야 하는 일도 많아져 더 어렵게 느껴진다. 사업회가 대국민 홍보 확산과 함께 많은 관심을 받게 되면서 관리해야 할 것들도 더 많아졌다. 국회나 관계 부처에서 긴급한 자료 요청이 있을 때는 부서 전체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기도 하지만 부서원들과 최대한 즐거운 분위기에서 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무탈하게 하루 일을 마치고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갈 때, 아이가 엄마가 하는 일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

사업회에 바라는 모습이 있다면?

공동회의가 정기적으로 열릴 때는 회의 일정 때문에, 또 공동회의 재개가 지연되고 나서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느라 모두가 조금씩 지쳐있다는 생각이 든다. 경영관리 측면에서 직원들의 복지와 함께 여러 세대가 함께 일하고 있는 조직인 만큼 구성원 각자에게 좋은 업무 환경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고 있다. 활기 있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서로 공감대를 키워가는 시간을 늘리면 좋겠다. 건강한 조직문화 속에서 사업회도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다.



↑ **노명아 부장의 모니터** | 사업회 예산회계관리 시스템



이길재

편찬실에서 일하고 있는 이길재 수석편찬원. 2006년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새어휘 조사, 겨레말 말뭉치 구축, 도서 및 특수자료 관리, 삽화 구축 등의 사업을 맡아왔다. 이길재 수석편찬원은 방언 전공자로서 《겨레말큰사전》의 지역어 올림말 선정, 원고 교정·교열을 포함해 《전자 겨레말큰사전》에 수록될 지역어 어휘 10만 개를 선정하여 집필하는 등 지역어 원고 관리를 총괄하고 있다.

《겨레말큰사전》에 수록될 지역어의 특징은?

종이사전을 더 편찬하지 않게 된 시대에 《겨레말큰사전》을 두고 흔히 '21세기 마지막 종이사전'이 될 것이라고 한다. 가장 최근에 편찬되고 있는 대사전으로서 《겨레말큰사전》에는 더 풍부한 지역어 어휘(6만여 개)가 수록될 예정이다. 보통의 규범어(표준어) 풀이와 마찬가지로 지역어의 집필 구조를 축소하지 않고 품사, 발음, 뜻풀이, 표준어, 지역, 용례, 관련어, 어원 등 지역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담아 집필하고 있다. 끝으로 남북의 지역어뿐만 아니라 중국, 카자흐스탄 등 해외 지역의 지역어까지 수록하고 있다는 점은 《겨레말큰사전》만의 특장점이라 할 수 있다.

공동회의에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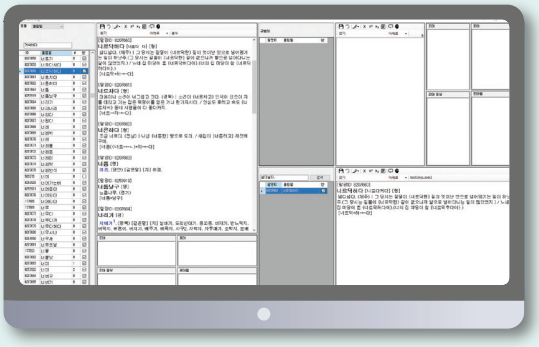
제5차(중국 베이징)부터 제25차(중국 다롄)까지 스물한 번 공동회의에 참여했다. 일주일 남짓한 시간 안에 많은 양의 원고를 다뤄야 해서 남북 편찬원들 간의 신경전이 대단하다. 한번은 북측 편찬원이 당신의 시어머니를 지칭해 '우리집 늙은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듣고 당황해서 "혹시 시어머님과 사이가 안 좋으십니까?"라고 물은 적이 있다. 남에서는 높여야 하는 대상에 '늙은이'를 쓰지 않지만, 북측에서는 그러한 경우에도 '늙은이'를 쓸 수 있기에 생긴 오해였다. 그날 같은 탁자에 앉은 남북 편찬원 모두가 한바탕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공동회의가 다시 열린다면?

지난 회의에서 만났던 북측 편찬위원들과의 대면이 가장 기다려진다. 사업회 편찬원들이 모두 같은 마음일 것 같다. 특히 나이 드신 북측 선생님들의 안부도 무척 궁금하다. 제26차 공동회의에서 제일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것은 남측에서 북측 협의용 《겨레말큰사전》 가제본을 제작한 것처럼 회의가 열리지 않는 동안 북측에서 어떤 작업을 얼마나 해 왔는가 하는 것이다. 특히 지역어 자료는 얼마나 더 조사하고 수집했는지 확인하고 싶다. 가제본에 수록한 북측 지역어 집필 원고를 직접 가져가서 예전처럼 북측 편찬원과 마주 앉아 한 단어, 한 단어를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끼는 지역어 단어가 있다면?

[충남] 갱갈할매숟가락(키조개), [경북] 다신어매젓(정)줄개(민들레), [러시아] 해개먹음이와 달개먹음이(일식과 월식), [중국] 손잡이뜨락또르(경운기), 쪼로로기(지퍼). 말이 만들어진 이유가 분명하고 투박하고 소박하지만 재미있는 표현들이다. 쓰이는 지역은 다 달라도 우리 겨레가 공유하는 정서를 잘 담아내고 있는 단어들이라 여러 곳에서 자주 이야기하고 글로도 남기고 있다.



↑ **이길재 수석편찬원의 모니터** | 지역어 원고 집필 프로그램



최준호

2008년에 사업회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전산 분야를 총괄하고 있는 최준호 편찬부장. 사전 편찬원들이 사전 원고를 편리하게 집필하고 교정·교열할 수 있도록 사전 편찬 프로그램을 설계, 개발하고 있다. 또한 30만 개가 넘는 원고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전 원고를 가공해 데이터베이스에 넣고 정비하는 일을 맡고 있다. 최근에는 《전자 겨레말큰사전》 편찬에 필요한 일들을 준비하고 있다.

사전 편찬에서 전산 분야의 역할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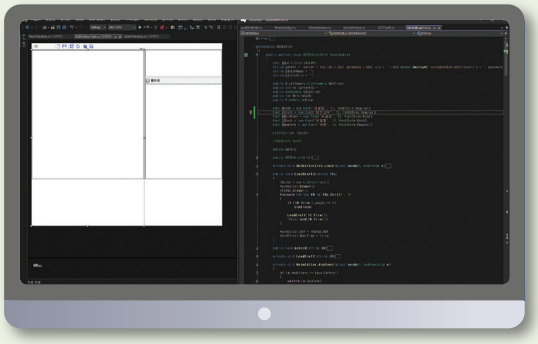
사전 편찬 환경이 종이로 된 낱말 카드가 아닌, 데이터로서의 원고를 관리하는 환경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사업회에서 전산 분야는 이제 사전이라는 요리를 담을 수 있는 '그릇'과 '조리도구'를 준비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수많은 사전 관련 자료와 원고 중에 필요한 것들만 쉽게 검색해 사전 편찬에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해서 《겨레말큰사전》을 만드는 편찬원들이 기술적인 제약 없이 원고를 집필하고 교정·교열하는 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최우선 목표다.

공동회의에서 전산 분과는 어떤 논의를 하나?

사전 원고를 어떻게 저장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은지, 원고 데이터 구조에 대한 논의를 많이 했다. 예를 들어 '학교'라는 올림말을 집필할 때 '〈올림말〉학교〈/올림말〉'과 같이 후속 데이터 작업이 수월하도록 구조를 정하고 원고를 실제 저장해보고 오류가 없는지, 있는 경우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그렇게 만든 파일 형식과 집필 프로그램을 북측 편찬위원들에게 처음 선보인 때가 기억난다. 개성에 있는 자남산여관이라는 고풍스럽고 운치 있는 곳이었는데, 당시 개성의 전기 사정이 좋지 않아 시연 도중에 정전이 되지 않을까 가슴을 졸이기도 했다.

《겨레말큰사전》 편찬 프로그램 '말망(malmang)'은?

처음 편찬 프로그램을 만들 때 직접 이름을 지어 붙였다. '말을 담는 망태기'와 '말이 연결된 네트워크'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담을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에 들었다. '말망'은 처음 개발된 이후 현재까지 세 번 정도 큰 변화가 있었다. 중점을 두어 해야 하는 작업이 집필인지, 교열인지에 따라 기능이 달라지며 이용하는 편찬원들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원고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조도 변화하고 있다.



↑ **최준호 부장의 모니터** | 《전자 겨레말큰사전》 원고 집필 프로그램 개발

기억에 남는 겨레말이 있다면?

'판형콤퓨터'. 남에서도 태블릿피시(PC)가 출시되고 그리 오래되지 않은 때라 '태블릿, 스마트패드, 사과패드' 등 지칭하는 이름도 다양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즈음에 평양 공동회의에서 쉬는 시간에 북측의 선생님이 지나가듯 '판형콤퓨터'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태블릿피시(PC)를 가리키는 단어라는 것을 회의에서 돌아온 후에야 알게 됐다. 분단 이후에 생겨난 물건들의 이름, 특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통신 기술과 관련된 물건의 이름을 어떻게 붙여야 할까, 남북이 그런 물건들에 이름을 붙이는 방식은 또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하게 했던 겨레말이다.

2022 겨레말 소식

사업회 민현식 이사장 취임



지난 8월 17일 통일부는 사업회 이사장으로 민현식 전 이사(서울대 명예교수)를 임명했다. 이어 9월 1일 사업회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사장 임기는 2025년 8월 16일까지다. 민현식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 편찬사업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그동안 편찬사업을 일궈온 역대 이사장을 비롯해 이사진의 노고와 모든 구성원의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더불어 민 이사장은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겨레말큰사전》의 정체성을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특별강연에서 민현식 이사장은 '겨레말큰사전, 우리의 정체성'을 주제로 사업회 구성원들이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길잡이'라는 자부심을 품고 '창조적 소수'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당당하게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민현식 이사장은 제9대 국립국어원장을 역임했으며,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회 이사로 재임하면서 사업회 운영과 발전에 이바지한 바 있다.

〈전국 겨레말 나들이〉 행사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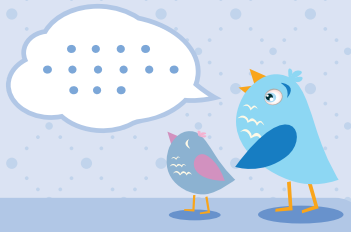




올해 사업회는 겨레말TV 프로그램 〈전국 겨레말 나들이〉 행사를 개최했다. 지난 7월 부산에서 시작해 9월 전주, 11월 청주에서 지역민들과 사투리로 창작한 시와 소설, 노래 등을 즐겼으며, 오프라인 행사뿐만 아니라 겨레말TV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국민과 직접 소통했다. 부산 나들이에서는 '사투리가 문학을 만났을 때'를 주제로 부산 사투리로 창작한 시와 소설을 낭독했고 부산말로 지은 시 노래 공연을 선보였다. 전주 나들이에서는 '사투리가 어린이를 만났을 때'를 주제로 전라북도 사투리로 창작한 동시와 동화를 만났고 전주서일초등학교 학생들이 사투리로 창작한 동요를 불러 눈길을 끌었다. '사투리가 시인을 만났을 때'를 주제로 청주에서 치른 마지막 나들이에서는 도종환 시인이 출연해 충청도 지역어 시와 지역 특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전국 겨레말 나들이〉는 지역을 직접 찾아 지역어를 사용하는 지역민과 소통하고 남북 및 해외 지역의 겨레말을 집대성한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기획한 행사이다. 행사 영상은 겨레말TV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YouTube
겨레말TV (유튜브에서 '겨레말TV'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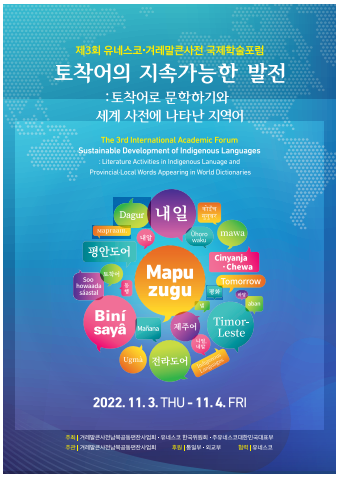


《미리 만나는 겨레말작은사전(ㄱ-ㅁ)》 발간



사업회는 지난 10월 9일 제576돌 한글날을 맞아 그간의 편찬사업과 북측 협의용 《겨레말큰사전》 가제본(2021년 3월 제작) 성과를 토대로 《미리 만나는 겨레말작은사전》을 발간하고 유관기관과 시·도 교육청, 학교 도서관 등 200여 곳에 무상 배포했다. 《미리 만나는 겨레말작은사전》은 통일의 주역이 될 남녘의 청소년을 비롯해 일반 국민이 남북의 언어문화를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꾸려졌다. 특히, 남북이 합의한 《겨레말큰사전》 자모 배열에 따라 남북 사전의 뜻풀이, 용례, 남북 대응어와 삽화, 남북 언어문화에 대한 정보 등 쉽고 풍부한 정보들을 담았다. 《미리 만나는 겨레말작은사전》은 모두 세 권으로 구성되며 올해는 그 첫 권(ㄱ~ㅁ)을 발간하고 내년에 2권과 3권을 연달아 발간할 예정이다. 앞으로 이 사전에는 북측의 일상생활 용어와 교과서 용어, 기초 전문용어, 관용구와 속담 등 3,000여 개의 올림말이 수록될 예정이다.

제3회 유네스코·겨레말큰사전 국제학술포럼 개최



사업회는 지난 11월 3일과 4일 이틀 동안 서울 페럼타워에서 유네스코와 함께 제3회 유네스코·겨레말큰사전 국제학술포럼(아래 '포럼') 〈토착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토착어로 문학하기와 세계 사전에 나타난 지역어'를 주제로 제1세션 '토착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착어로 문학하기'와 제2세션 '세계 주요 사전에 나타난 지역어'를 다뤘다. 권재일 서울대 명예교수의 기조강연 '토착어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토착어 사전의 힘'을 시작으로 제1세션에서는 에콰도르, 필리핀, 잠비아, 대한민국의 전라도와 평안도 출신 작가가 토착어로 창작한 시와 창작 과정을 발표했다. 또한 각 지역 토착어 사용자들의 시 낭송을 영상으로 보는 시간을 가졌다. 제2세션에서는 '제주 방언과 사전', '다우르어 사용 전망과 표준화된 사전의 필요성', '테툼어 사전: 그 맥락, 원리, 행동, 성공과 도전' 등 세계 사전에 수록된 지역어의 특징을 살펴봤고 지역어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겨레말큰사전》 편찬 의미를 되짚는 시간을 가졌다. 대면 행사로 진행된 이번 포럼의 현장 영상은 사업회의 유튜브 채널 겨레말TV와 포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토착어로 문학하기
아카이브



①				③ 4		④	
②							
약				⑧			
						⑤ 사	
⑥		⑦					
				⑨ 수			
						⑪	
			⑩ 고	층			
⑫						표	

① 캡슐로 된 약을 가리키는 북녘말. 북녘에서 외래어로 '카프셀([도]Kapsel)'이라고도 한다.

예) '위보호알약'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 {○○약은} … 고려약액체를 배합한 특효의 위병치료제라는것이다.《달라진 선택》(북)

② '갑자기 세차게 내리는 비'를 이르는 북녘말.

예) {○○○에} 도랑이 넘치다.《조선말대사전》(북)

③ 운동 경기에서, 다음 승부를 가릴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선수, 시합을 이르는 말로 '4강'을 북녘에서 이르는 말. 4○○.

예) 프랑스에서 진행된 A급자격경기에 출전한 우리 나라 녀자빙상호케이선수들은 단번에 {4○○로} 되였다.《조국의 장한 아들, 딸들》(북)

④ 북녘의 손전화기에서 남녘의 '앱스토어'에 해당하는 '온라인 앱 마켓'의 이름. 온라인 게임, 전자도서와 같은 '자료'를 '서비스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예) 과학자, 기술자들은 콤퓨터망봉사의 주축을 이루는 … 모든 {○○○○를} 우리 식의 프로그람을 리용하여 실현하는데 성공하였다.《중학교 6학년 교과서》(북)

⑤ 출입국을 허가하는 증서인 '비자(visa)'의 북녘말.

예) 안해는 곧장 {○○}수속을 해가지고 서울로 돌아가겠노라 서둘렀다.《개이지 않는 하늘》(북)

⑥ 북녘에서 '가로수'를 순우리말로 일컫는 말.

예) 참오동나무는 꽃이 아름답고 향기를 뿜기때문에 {○○○로도} 많이 리용하고있다.《참오동나무》(북)

⑦ 잘 익은 무에 3가지 종류의 고기를 넣어 만든 찜요리. 특히 개성 지역의 이 요리가 유명하다. 개성○○○.(*북녘에서 '무'의 규범표기는 '무우'이다.)

⑧ 겉과 속이 다른 말이나 행동으로 남을 속여 넘기려는 수법을 뜻하는 북녘말. ○○○수.

예) 아마 메추리알이 잘 팔리지 않으니 {○○○수를} 쓰는거겠지.《메추리알과 닭알》(북)

⑨ 북녘에서는 샤프펜슬을 '이것'으로 만든 연필이라고 해서 ○○연필이라고 부른다.

예) 공장에서는 학생들의 동심에 맞게 {○○연필의} 색갈을 다양하게 하기 위한 사업에도 큰 힘을 넣고있다.《더 많은 ○○연필을》(북)

⑩ 북녘에서 '아파트'를 이르는 말. 외래어로 '아빠트'라고 하기도 한다. 고층○○○.

예) 건설장은 새로 지은 {고층○○○들이} 숲을 이룬 문수거리의 복판에 있었다.《비약의 나래》(북)

⑪ 음식점에서 파는 음식의 이름과 가격이 적힌 표로 남녘에서 흔히 '메뉴'라고 부르는 것의 북녘말.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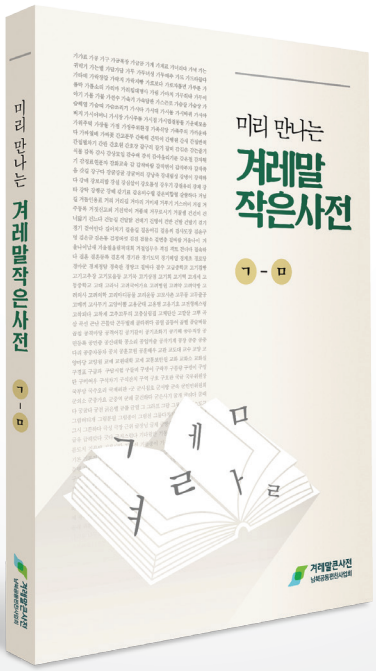
예) {○○표를} 보고 료리를 신청하다.《조선말대사전》(북)

⑫ '식재료'를 이르는 북녘말.

예) {○○○으로는} 콩 300g, 소금 10g을 준비한다.《몇가지 콩음식 만들기》(북)

정 답

①교갑약 ②갑작비 ③4강자 ④자료봉사 ⑤사증
⑥길나무 ⑦무우찜 ⑧오그랑수 ⑨수지 ⑩고층살림집
⑪차림표 ⑫음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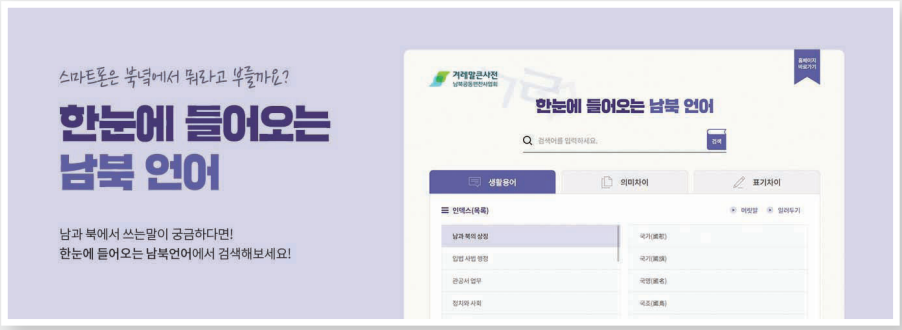


미리 만나는 겨레말작은사전

ㄱ – ㅁ 발간

남북 일상생활 용어와 교과서 용어,
기초 전문용어 등을 선별하여
남북 사전의 뜻풀이, 용례, 그림, 사진,
표 등을 풍부하게 제시함으로써
통일의 주역이 될 다음 세대인 청소년들이
남북의 언어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편찬하였습니다.

《미리 만나는 겨레말작은사전》 2권, 3권 (2023년 발간 예정)
비매품



* 한눈에 들어오는 남북 언어
http://dic.gyeoremal.or.kr



미리 만나는 《겨레말큰사전》, 〈남녘말 북녘말〉 앱에서 궁금한 겨레말을 검색해 보세요!

'생활용어', '표기차이', '의미차이' 갈래별 3,600개 어휘 검색 서비스,
카드뉴스, 겨레말TV, 겨레말 퀴즈까지 겨레말큰사전에서 제작하는 모든 콘텐츠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겨레말' 또는
'남녘말 북녘말' 검색



애플 앱스토어에서
'겨레말' 또는
'남녘말 북녘말' 검색

겨레말과 소통하기

지금 SNS에서 '겨레말큰사전'을 검색하시면 SNS 속 '겨레말 소식'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YouTube	blog	facebook	twitter	Instagram
겨레말TV (유튜브에서 '겨레말TV' 검색)	**블로그** (네이버에서 '겨레말 블로그' 검색)	**페이스북** (@gyeoremalsajeon)	**트위터** (@gyeoremalsajeon)	**인스타그램** (@gyeoremaltv)



〈겨레말큰사전 웹진 및 소식지 구독 방법〉

겨레말큰사전 누리집에서 '소식지 구독하기'를 통해 구독 신청하시면
웹진과 카드뉴스, 소식지 등 다양한 겨레말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